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
태도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그릿과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이 현 주

2024년 2월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 태도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그릿과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지도교수 최 보 영

이 현 주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12월

이 현 주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박 정 환	
위 원	김 성 봉	
위 원	최 보 영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23년 12월

부모의 양육 태도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그릿과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이 현 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최 보 영

청소년기의 후반에서 성인기의 시작인 대학생은 부모로부터 독립하게 되고 성숙한 성인으로 기능하게 될 뿐 아니라, 취업, 결혼, 출산 등 생산적인 일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은 취업 불안, 일자리의 양극화, 극심한 소득 격차 등으로 인한 불안으로 진로를 결정하기 힘들어하고 있으며, 따라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특히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 태도, 그릿,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을 변인으로 하여 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신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대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 태도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과정에서 그릿과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기 위하여 첫째, 부모의 양육 태도, 그릿,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알아보고, 둘째, 부모의 양육 태도, 그릿,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며, 셋째, 부모의 양육 태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이에서 그릿과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은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기로 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 전국에 소재한 4년제 대학에서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및 모바일 설문을 실시하여 총 409명의 데이터를 SPSS 26과 PROCESS macro 4.2 통계 프로그램으로 자료 분석을 실행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양육 태도, 그릿,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이의 상관성이 유의미함을 확인하였다.

둘째, 부모의 양육 태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이에서 그릿,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이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서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모의 양육 태도, 그릿,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PROCESS macro의 Model 4를 이용하여 다중병렬매개모형을 검증한 결과, 부모의 양육 태도가 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그릿과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은 다중병렬매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부모의 긍정적 양육 태도와 부정적 양육 태도를 각각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여 그릿과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부모의 긍정적 양육 태도는 완전 매개효과가, 그리고 부정적 양육 태도는 부분 매개효과가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긍정적 양육 태도뿐 아니라 부정적 양육 태도 역시 정적으로 매개효과가 나타났는데, 김소희, 박지영, 손영우(2018)는 긍정적 양육 태도와 더불어 부정적 양육 태도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이유를 동양의 문화와 우리나라 문화권의 영향이라고 하였다. 이승진과 최려나(2020)의 연구에서는 중학생이 ‘강요’ 등과 같은 부정적 양육 태도가 학업에 대한 열의를 일시적으로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나, 이는 비자발적으로 학업 열의를 높이는 결과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양육 태도와 더불어 부정적 양육 태도 역시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이유를 Erikson의 심리 사회적 발달단계(노안영, 강영신, 2003)와 한국인의 정(최상진, 2011)에서 찾아보았다.

청소년기의 후반 및 성인 초기에 속하는 대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은 역시 진로 문제로 진로 및 직업 선택일 것이며,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부모의 양육 태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그릿,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을 선정하였고, 그 결과 부모의 양육 태도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그릿,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은 정적으로 매개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향후 대학생들의 진로 및 직업 선택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다양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주제어: 대학생, 양육 태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그릿,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및 가설	6
3. 연구모형	7
4. 용어의 정의	8
II. 이론적 배경	10
1. 부모의 양육 태도	10
2. 학업적 자기효능감	13
3. 그릿	16
4.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	19
5. 부모의 양육 태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관계	23
6. 부모의 양육 태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사이에서 그릿의 매개효과	25
7. 부모의 양육 태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사이에서 진로 결정 자기 효능감의 매개효과	28
8. 부모의 양육 태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이에서 그릿과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31
III. 연구방법	33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절차	33
2. 측정 도구	34
3. 연구 절차 및 자료처리	39
IV. 연구결과 및 해석	40
1.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40

2. 연구 변인의 기술통계	42
3. 연구 변인 간 상관관계	44
4. 다중 회귀분석	46
5. 부모의 양육 태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사이에서 그릿과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48
V. 논의 및 제언	58
1. 결과 요약 및 논의	58
2. 결론 및 제언	63
VI. 참고문헌	65
Abstract	82
부록	85

표 목 차

표Ⅲ-1 연구대상의 개요	33
표Ⅲ-2 부모 양육 태도의 문항 구성과 본 연구의 신뢰도 계수	35
표Ⅲ-3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문항 구성과 본 연구의 신뢰도 계수	36
표Ⅲ-4 그릿의 문항 구성과 본 연구의 신뢰도 계수	37
표Ⅲ-5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의 문항 구성과 본 연구의 신뢰도 계수	38
표Ⅳ-1 연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41
표Ⅳ-2 연구 변인의 기술통계	42
표Ⅳ-3 연구 변인 간 상관관계	45
표Ⅳ-4 부모의 양육 태도, 그릿,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	47
표Ⅳ-5 부모의 양육 태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에서 그릿과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49
표Ⅳ-6 다중병렬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51
표Ⅳ-7 다중직렬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52
표Ⅳ-8 긍정적 양육 태도가 학업적 자기효능감, 그릿,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	53
표Ⅳ-9 긍정적 양육 태도 매개효과 및 경로 검증	54
표Ⅳ-10 부정적 양육 태도가 학업적 자기효능감, 그릿,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	55
표Ⅳ-11 부정적 양육 태도 매개효과 및 경로 검증	56

그림 목 차

그림 I-1 부모의 양육 태도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7
그림 IV-1 부모의 양육 태도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52
그림 IV-2 부모의 긍정적 양육 태도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55
그림 IV-3 부모의 부정적 양육 태도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57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는 통념상 대학생을 성인기의 시작으로 인지한다. Erikson(Erik H, Erikson, 1902~1994)은 심리사회적 발달단계에서 보면 대학생은 성인 초기에 속하며, 이 시기부터 개인은 부모로부터 독립하게 되고 성숙한 성인으로 기능하게 될 뿐 아니라, 생산적인 일을 수행하는 시기라고 하였다. 또 Cattell(Raymond B, Cattell, 1905~1998)은 이 시기를 청소년기 후기라고 했는데, 이 시기에는 아동기보다 훨씬 많은 문제와 스트레스를 겪게 되며, 독립성, 성(sex), 자기표현 등에 대한 갈등을 겪을 뿐 아니라 정서적 장애와 이탈 행동이 나타나고 이후에 오는 성인기(23~50세)에서 이루어지는 직업, 결혼, 가족 등과 관련된 일이 이 시기에서 경험된다고 정의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은 1997년의 IMF 외환위기 이후 ‘대학 가봤자 취업하기 어렵다’라는 말을 듣고 자랐고, 좋은 일자리와 그렇지 않은 일자리의 양극화 현상이 심해졌으며, 소득 격차 및 비정규직 증가를 빼놓을 수 없다. 이렇게 소득 격차와 양극화가 심해질수록 권위형 부모가 증가하고 자녀의 행동과 성취를 부모가 상세하게 관리하는 비율이 뚜렷하게 증가함을 보여준다고 했으며(기울어진 교육, 마티아스 도프케 & 파브리지오 질리보티, 2019), 한국의 학부모들은 근래에 들어 특히 양극화의 불안에 시달리기 때문에 대학생에게도 경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문재인 이후의 교육, 이범, 2020).

즉 부모의 양육 태도는 청소년기와 마찬가지로 변함없이 대학생의 학업, 진로 등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에 관한 연구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비교해서 다양하지는 않은 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부모의 양육 태도와 자녀의 성격 특성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로 아버지와의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남학생은 높은 자아 탄력성의 성격 특성을 가진다고 하는 연구

(Kerns & Stevens, 1996), 부모와의 관계에서 안정적 애착 모델을 지닌 대학생들은 성격 특성 중 정서적 불안이 낮고 외향성과 친화성이 높았으며, 특히 여학생의 경우에는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장휘숙, 2001) 등이 있다. 그리고 부모의 양육 태도와 대학생 자녀의 성격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라 신경증, 외향성, 성실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연구(박계란, 이지민, 2012) 등이 눈에 띄고 있다.

또 한국판 청소년용 동기모형 부모양육태도(PSCQ_KA)를 타당화한 김태명과 이은주(2017)의 정의에 근거하여 부모의 따스함, 자율지지, 구조제공 등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거부, 강요, 비밀관성의 부정적 양육 태도로 구분하는데,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 태도가 대학생 자녀의 학업소진에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가 있다(김민혜, 오인수, 2019). 그리고 성장 마인드셋은 학업적 의지 전략, 대학 생활 적응, 애정적 부모 양육 태도와는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거부적 부모 양육 태도와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김은지, 심정미, 윤정, 김정섭, 2020), 부모의 긍정적 양육 태도가 대학생의 회복 탄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긍정적 양육 태도가 높아질수록 회복 탄력성이 증가한다는 것에 관한 연구(최정명, 2022) 등 다양하나 아동기나 청소년기 보다 그 수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습자가 학업적 과제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내리는 판단으로 정의된다(Bandura, 1977, 1976). Bandura에 의하면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습자는 도전적인 과제를 선택하고(Bandura & Schunk, 1981)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끈기 있게 과제를 지속하며(Bandura & Schunk, 1981; Schunk, 1982), 과제특수적 효능기대가 기술이나 능력보다 지적 수행을 더 잘 예측한다고 하였다(Schunk, 1984, 1989).

심리학에서 자기 효능감(自己效能感, self-efficacy)은 어떤 상황에서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기대와 신념으로 캐나다의 심리학자 앨버트 반두라(Albert Bandura)가 제시한 개념이다. 그리고 자기효능감에 대한 기대(expectation of self-efficacy), 자기효능감에 대한 신념(belief of self-efficacy)이라는 의미에서 자아효능감(self-efficacy)이라고도 한다. 자기효능감은 해야 할 일을 아는 것과는 같지 않으며, 자기효능감을 측정할 때 개개인은 그들의 기술과 그 기술을 실행으

로 옮기는 그들의 역량을 평가한다.

또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업 상황에 관련된 동기적, 인지적 변인들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수행과 성취 수준에 직접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것은 자기조절능력과 관련되며(Bouffard-Bouchard, 1990), 학습자의 내재동기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고, 내재동기와 자기효능감은 자기조절 학습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Garcia & Pintrich, 1991). 즉 학업 상황에서 학습자의 자기효능감은 수행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전략사용 또는 자기조절과 같은 인지적 변인의 영향을 통해서 수행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런데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부모의 양육 태도에서 영향을 받으므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부모의 다양한 태도 및 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으며(박영신, 1997; 박영옥, 김정희, 2009), 또 부모의 양육 태도는 학업성취와 밀접하게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유미영, 홍계영, 2010). 그리고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또래 관계는 부모 양육 태도와 주관적 안녕감을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녀의 입장을 공감적으로 이해하고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존중하며 과도한 성취 기대와 압력을 가하지 않는 부모의 양육 태도가 높은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긍정적인 또래 관계를 통해 나타난다고 하였다(김송은, 2010).

그릿은 사전적으로 투지, 끈기, 불굴의 의지를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다. 앤젤라 더크워스(2016)는 그의 저서 『그릿, IQ, 재능, 환경을 뛰어넘는 열정적 끈기의 힘』에서 그릿을 구성하는 두 요소는 ‘열정과 끈기’라고 했으며, 성공과 성취를 끌어내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투지 또는 용기라고 했다. 즉, 재능보다는 노력의 힘을 강조하는 개념이며, 우리나라에서는 투지(오아량, 손영우, 이수란, 2019)로 표현되기도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상황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힘을 뜻한다(박혜연, 2018).

더불어서 그릿은 부모의 양육 행동과 자녀의 행동에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모의 양육 행동을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그릿이 향상되며, 학교 적응력을 높임으로써 삶의 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주고(권미나, 2020), 대학생의 부모 애착이 진로 태도 성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그릿의 매개효과를 밝히기도 했다(김송은, 2020). 또 부모의 긍정적 양육 태도는 아동의

기본 심리 욕구를 통해 그릿-끈기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이선형 외, 2020). 이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 태도가 자녀의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이승진 외, 2020; 임효진 외, 2020; 조승화, 2019).

대학생 시기는 진로의 관점에서 볼 때 생애에서 가장 중요하게 직업 세계를 탐색하는 시기라고 하였다(Super, 1969). 과거보다 학교 진로 교육이 많이 발전하여 많은 학생이 다양한 직업을 탐색하지만, 아직 대학생들이 직업적 목표를 쉽게 정하기는 어려운 일이며, 실제로 ‘꿈을 정하지 못하겠다’라고 토로하는 학생을 많이 만나게 된다고 한다(문재인 이후의 교육, 이범, 2020). 특히 코로나 19 이후 비대면 시대, 원격 교육, 원격 문화, 원격 진료 시대, IT와의 융합 형태로 나타날 4차 산업의 대두 등으로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 등 더 많은 진로 결정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필요한 시기이다.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이란 Bandura(1977)의 ‘목표한 과업을 완성하기 위한 행동을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며, 행동과 행동 변화를 이해하고 예측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설명한 자기효능감(self-efficacy) 개념에서 출발하였는데, Hackett & Betz(1981)는 Bandura(1977)의 자기효능감 이론을 진로 분야에 처음 적용하여 진로 선택, 진로개발, 진로 행동 등과 관련된 자기효능감에 대한 확신을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career related self-efficacy)’으로 개념화하였다. 그런데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은 자기효능감과 마찬가지로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경험과 노력을 통한 개발이 가능하므로 진로 교육 등을 통해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을 증진 시키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였다.

부모의 긍정적인 관여와 진로 결정과의 관계에서 특히, 자기효능감은 아버지와의 소원함과 어머니와의 신뢰감이 진로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결정적인 변인이고, 자기효능감은 부모의 긍정적인 관여와 진로 결정을 매개한다고 하며(구분용, 유제민, 2010), 부모의 양육 태도를 애정적, 자율적, 성취적, 합리적으로 높게 지각하는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박완성, 김미숙, 2009) 등을 보면 부모의 양육 태도는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학습자의 자기효능감은 학업 상황에서 수행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전략사용이나 자기조절과 같은 인지적 변인의 영향을 통해서 수행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불안을 느끼는 정도가 낮고, 보다 효과적인 학습전략을 사용하며 뛰어난 자기조절력을 보인다(Pintrich & De Groot, 1990; Zimmerman et al, 1992; Zimmerman & Martinez-Pons, 1990).

우리나라의 교육환경, 제도상 대부분의 진로 선택이 학업 상황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은 교육 선택 과정이나 개인의 학업성취, 직업 흥미 등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진로 결정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여선영, 2015). 또 공학/과학 계열 전공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 전공의 지속성 간의 관련성을 연구한 결과 공학 계열의 직업을 고려하는 학생들에게서 직업과 학업에서의 자기효능감이 중요한 변인임이 밝혀졌다(Lent, Brow, & Lakin, 1984).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 태도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부모의 양육 태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이에서 그릿과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대학생이 자기주도적인 진로를 선택하여 행복감을 높여줄 수 있는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및 가설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 태도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그릿과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에 따른 연구문제 및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부모의 양육 태도, 그릿,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은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서로 상관이 있는가?

연구문제 2. 부모의 양육 태도, 그릿,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게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가?

연구문제 3. 부모의 양육 태도(긍정적 양육 태도, 부정적 양육 태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이에서 그릿과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은 매개효과가 있는가?

이러한 연구문제를 바탕으로 설정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1. 부모의 양육 태도, 그릿,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은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서로 상관이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2. 부모의 양육 태도, 그릿,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게 유의미하게 영향을 줄 것이다.

연구가설 3. 부모의 양육 태도(긍정적 양육 태도, 부정적 양육 태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이에서 그릿과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3. 연구모형

본 연구는 아래에 있는 그림 I-1의 연구모형과 같이 부모의 양육 태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이에서 그릿과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선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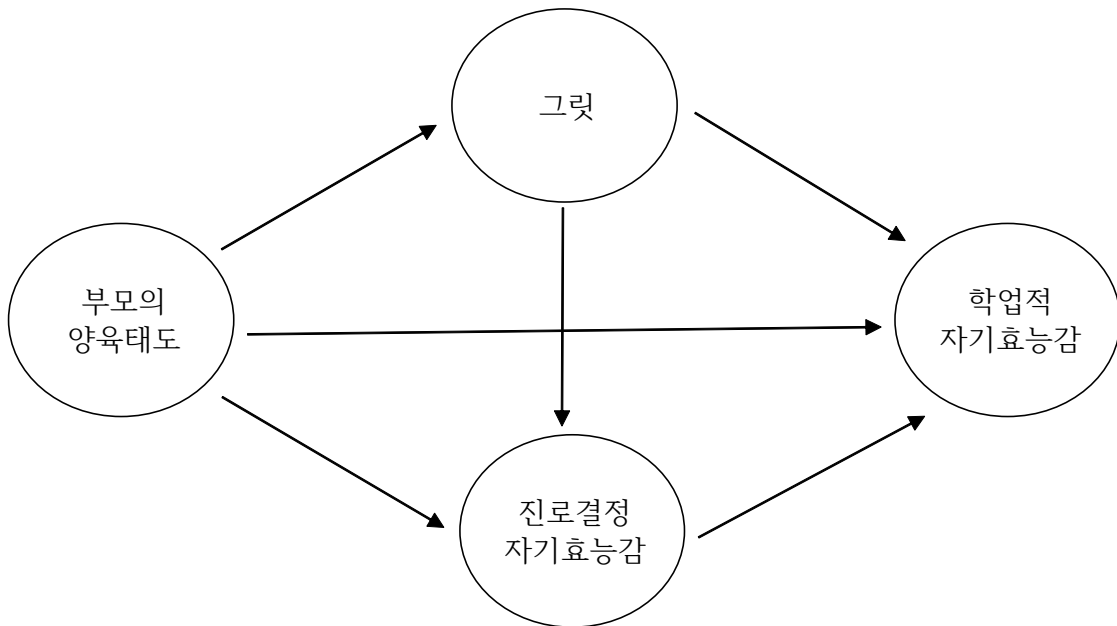


그림 I-1 부모의 양육 태도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4.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 태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그릿,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가. 부모의 양육 태도

부모의 양육 태도는 부모가 자녀를 대하고, 가르치고, 돌보는 데 나타내는 태도 및 행동으로 정의하며(김영희, 김신정, 2003), 즉 부모나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에 있어 나타내는 일관성이 있는 반응양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김지혜, 2017), 본 연구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사회화를 교육하는 과정에서 자녀들과의 관계를 갖는 양식, 즉 부모가 자녀들과 관계를 맺는 양식이라고 정의한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의 태도는 자녀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며(박령희, 2017), 본 연구에서는 김태명과 이은주(2017)가 정의한 한국판 청소년용 동기 모형 부모양육태도척도(PSCQ_KA)를 바탕으로 부모의 따스함, 자율지지, 구조제공 등의 긍정적 양육 태도와 거부, 강요, 비일관성의 부정적 양육 태도로 구분하도록 한다.

나.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습자가 학업적 과제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내리는 판단으로 정의하며(Bandura, 1977, 1986),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노력을 더 기울이고, 어려움이 있어도 끈기 있게 과제를 수행한다(Bandura & Schunk, 198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행과 성취 수준에 직접적, 간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과제를 지속하고 자신의 반응을 관찰하여 평가하는 능력과 관련된다고 정의한다.

다. 그릿

그릿은 IQ, 재능, 환경을 뛰어넘는 열정적 끈기의 힘으로(GRIT, 앤절라 더크워스, 2016), 장기적인 목표를 위한 열정과 인내를 의미하며 흥미 유지와 노력 지속

의 두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Duckworth et al., 2007). 그릿의 개념은 끈기나 투지로 번역되어 사용되기도 했지만(이수란, 손영우, 2013; 하혜숙, 임호진, 황매향, 2015), 지금은 ‘그릿’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임호진, 2017), 이는 끈기, 투지, 열정을 아우르는 ‘그릿’의 특성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목표를 향해 꾸준히 장기적이며 일관되게 지속하는 속성과 더불어 역경과 장애물이 있어도 참고 견디며, 끈기 있게 노력하는 성향으로 정의한다. 이는 그릿의 하위요인인 흥미의 일관성(Consistency of Interests)과 노력의 지속성(Perseverance of Effort)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라.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career decision self-efficacy)은 Bandura(1977)의 자기효능감 개념을 진로 결정과 연관 지어 만든 개념으로, ‘진로 결정과 관련된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다는 자신감(Taylor & Betz, 1983)’으로 일컫는다. 즉 진로와 관련된 자기효능감은 특정 영역에 대한 효능감이라기보다는 진로결정 과정에서 경험하는 효능감이다(강하은, 2021).

Hackett와 Bets(1981)는 진로 영역에서의 선택과 적응에 관련되는 개인의 효능감을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career self-efficacy)’으로 개념화하였는데, 본 연구에서의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 선택 과정에서 현명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개인적 확신이라고 보았다. 다시 말하면,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의 자신감과 유능감에 관한 개인의 능력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부모의 양육 태도

가. 부모 양육 태도의 개념

부모 양육 태도란 부모가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기르고 가르치는 형태이며 행동에 대한 경향성과 반응을 하는 양식으로 자녀의 성격 형성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가정에서 인간관계가 모순 없이 원만하고 바람직하게 조성되어 가는 전체적인 양상에 의하여 규정된다(김신정, 김영희, 2008). 즉 가정 내에서 자녀의 성격, 태도, 행동, 가치체계 등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태도라고 할 수 있으며, 또 부모의 관찰 가능한 행동과 자녀의 인식, 행동, 태도에 대한 부모의 반응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김재은, 1974).

부모의 양육 태도에 관한 다양한 정의를 살펴보면 Becker(1964)는 부모 또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할 때 나타내는 태도 및 행동으로 정의하였고, 교육학 사전 편찬위원(1996)에 따르면, 양육 태도란 양육자가 아동에 대해서 취하는 일반적인 태도와 행동 즉, 유아기의 훈육, 생활 훈련 및 전반적인 유아의 행위에 대한 부모의 태도로 정의하고 있다. 권일선(1994)은 어머니가 자녀와의 상호작용 시 일반적,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태도 및 행동과 같은 외적 성향을 양육 태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서동미(1997)는 일정한 문화양식의 범주 내에서 어머니가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기르고 가르치는 태도 또는 행동의 경향성과 반응양식을 양육 태도라 하였고, 지진미(2003)는 이를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보편적,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외현적, 내현적인 행동이며, 아동에 대한 부모의 반응방식과 아동에 대한 요구라고 정의하였다.

나. 부모 양육 태도의 구성 요소

부모의 양육 태도를 유형별로 나누기는 쉽지 않은데, 부모의 성격, 환경, 자녀

등의 다양한 이유로 학자에 따라 유형의 분류 방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Shaefer(1959)는 부모의 양육 태도를 애정-거부, 자율-통제로 구분하여 유형화 했는데, 애정적 양육 태도의 부모는 자녀에게 애정 및 관심을 표현하고 자녀를 존중하며 의사소통 수준이 높으나 통제적 양육 태도의 부모는 부모의 규칙이나 기대에 따르도록 지도, 훈육하고 성숙한 행동을 요구하며 부적절한 행동을 규제한다고 하였다(허청아, 배한진, 2018).

Pinquart, M. & Teubert, D.(2010)는 부모의 양육 태도와 유아 및 아동의 문제행동과의 관련성에 관한 메타분석 연구에서 부모의 통제적, 방임적, 권위주의적 양육 태도가 자녀의 외현화 문제행동과 높은 관련성이 있다고 하였으며, 부모의 양육 태도와 함께 언급되는 훈육은 부모-자녀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가 다양하게 발생하는 문제 상황에서 자녀가 바르게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통제하고 지도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지는 말이나 행동으로, 부모가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행동, 가치, 태도를 자녀에게 가르치는 사회적 측면을 강조했다(이지혜, 장영숙, 2016).

Symonds(1949)는 부모 양육 태도가 자녀를 사랑하고 수용하느냐에 따라 수용-거부로 구분하고, 다시 부모의 방식으로 복종 혹은 지배하느냐에 따라 지배-복종의 2개 요인으로 분류하였으며, Baumrind(1973)는 부모의 양육 태도에서 통제를 강압적, 제한적, 처벌적 태도가 아닌 규칙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엄격한 훈육으로 정의하고 통제 유형에 따라 권위형, 독재형, 허용형으로 구분하였다. 적대와 온정, 냉정한 초연함 대 감정적 개입, 그리고 허용 대 제한으로 구분한 Becker(1964), 방임, 민주, 애정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Baldwin(1949). Baumrind(1973)의 이론을 토대로 하여 권위, 허용, 독재, 방임 등 네 가지로 구분하며 바람직한 양육 태도로 권위적 유형을 제시한 Maccoby와 Martin(1983) 등 다양하다.

한편, 부모 양육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살펴보면, Skinner 등(2005)은 기존의 80문항으로 구성된 Parents as Social Context Questionnaire(Skinner, Wellborn, & Regan, 1986)를 바탕으로 차원성 검증과정을 통해 6요인 모형이 우수한 적합도를 보임을 증명하고, ‘따스함, 거부, 자율성지지, 강요, 구조제공, 비밀관성’의 6개 요인으로 구성된 양육척도를 제시하였다. 정교영과 신희천

(2011)은 부모보고용 30문항을 타당화하였고 이는 부모용 한국판 부모양육행동 척도(K-PSCQ)로 활용되고 있다. 또 김태명과 이은주(2017)는 Skinner, Johnson과 Snyder(2005)가 동기촉진적 관점에서 제작한 청소년용 부모양육태도척도(PSCQ_A)의 6요인 24문항을 타당화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김태명과 이은주(2017)의 부모양육태도척도(PSCQ_A)를 살펴보면 부모의 따스함, 자율지지, 구조제공 등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의지, 존경, 믿음과 정적 관계를 보인 것과 달리 거부, 강요, 비일관성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부모에 대한 의지, 존경, 믿음과 부적 관계를 보였으나, 따스함, 거부, 자율지지, 강요, 구조제공, 비일관성 등 6개의 요인이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이는 Skinner 등(2005)이 제시한 바와 같다고 하였다.

정교영과 신희천(2011)의 연구 결과에서도 양육 요소들이 양극성 차원, 즉 온정-거부, 구조-혼란, 자율성 지지-강제와 같은 3개 요인의 양극성 구조가 아니라, 서로가 별개인 6개 요인 다차원 구조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합함을 지지하였다. 즉, 온정과 거부, 구조와 혼란, 자율성 지지와 강제는 서로 반대개념이지만, 별개의 차원으로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김태명과 이은주(2017)의 PSCQ_KA 척도 타당화한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서 따스함과 거부, 자율지지와 강요, 구조제공과 비일관성의 6개의 요인은 서로 대척점에 있다기보다는 독립된 별개의 차원임이 재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학업적 자기효능감

가.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개념

학업적 자기효능감이란 Bandura의 사회학습이론 중 자기효능감에서 발전한 개념으로 학업적 상황에서의 자기효능감을 의미한다. Bandura(1986)가 주장한 자기효능감은 효능기대를 말하는데, 효능기대란 결과를 성취하는 데 필요한 행동이 성공한다는 확신을 뜻한다. 그러므로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특정 행동을 선택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며, 행동을 지속하는 정도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즉 학업적 자기효능감이란 학습자가 자신의 학업 수행능력에 대해 보이는 기대 신념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학습자가 새로운 학습 상황에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하였다(Bandura, 1977; 1986).

Bandura(1986)와 Schunk(1990)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학습 상황에서 동기변수들은 학습자가 스스로 과제를 선택하고, 선택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끈기를 갖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다양한 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학교에 잘 적응하고(권재환, 김경희, 2013; 이연수, 원세정, 2013; 임유진, 2001) 학업성취가 높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안도희, 김지아, 황숙영, 2005).

즉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습자가 학업적 과제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의미한다(Bandura, 1986).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도전적인 과제를 선택하고(Bandura & Schunk, 1981), 주어진 과제를 잘 수행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뿐만 아니라(Schunk, 1983) 어려운 일에도 끈기 있게 과제를 지속한다는 것이다(Bandura & Schunk, 1981; Schunk, 1982).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관한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김영란과 김민정(2016)은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성적의 상호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이는 주어진 학습과제를 성취해 낼 수 있다는 주관적 확신과 실제 학업 성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성적향상을 위해서는 스스로 학업을 성공적으

로 수행할 수 있다고 믿고 실천하는 신념과 태도를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자신감과 자기조절 효능감은 학교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며(홍애순, 2014), 자기효능감은 스트레스 대처방식보다 학교 생활 적응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노원재, 양윤, 박영숙, 2007). 김혜림(2013)은 학습자가 학업적 과제를 수행할 때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지식 및 기술을 학습하고 수행할 수 있다는 본인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정의하였으며, 김아영, 박인영(2001)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이란 학습자가 자신의 학업적 과제수행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조직 및 실행해가는 능력에 관한 판단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나.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구성 요소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는 Williams와 Coombs(1996)가 개발한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와 ‘자기조절 효능감 척도’(Martinez-Pons& Zimmerman, 1986) 등이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Bandura(1986)의 자기효능감 이론에 근거하여 학업적 자기효능감 구성요인을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 귀인 등 네 가지 요인으로 구성하였다(박지원, 2012).

그런데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도는 비교적 낮은 상관을 보였기 때문에(김아영, 1997b), 김아영과 박인영(2001)은 학업 상황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개발하였으며 타당화 연구를 통해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자기효능감 척도 간의 타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더 나아가 김아영(2002)은 교육 장면에서 학생들의 학업 관련 동기를 측정하고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척도를 타당화하기 위해 전국 규모의 표본으로 표준화하여 전체척도와 하위척도에 대한 T점수와 백분위 기준을 제작하였다. 연구 결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의 세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며(김아영, 2002),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에 기술한 내용과 같다.

먼저, 자신감(Self-confidence)은 ‘학습자가 자신의 학업능력에 대해 보이는 확신 또는 신념의 정도’라고 하였다(Sherer et al, 1982). 또 Bandura(1986)가 상황-특수적인 개념에 의거하여 어떤 결과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조직하고 수

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판단이라고 내린 정의를 학업적 상황에 적용하면 ‘자신의 전반적인 학문적 수행능력에 대한 학습자의 확신 또는 신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자기조절 효능감(Self-regulatory Efficacy)은 개인이 자신의 행동 여러 측면에 대한 의도적 주의집중으로,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자기관찰, 자신의 목표와 현재의 수행을 판단하여 적용되는 기준을 말한다. 목표 특성, 목표 달성의 중요성과 수행에 대한 긍정성 또는 부정성 여부를 결정하는 자기 판단, 목표 과정의 만족 여부를 말하며, 행동을 조정하고, 향상 및 개선을 위해 스스로 동기화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따라서 자기 반응과 같은 자기조절적 기제를 잘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효능기대이다(Bandura, 1986; Schunk, 1990; Zimmerman, 1989).

자기효능감이 높은 개인은 도전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선택하며, 자기효능감이 낮은 개인은 자신의 기술을 뛰어넘는 위협적인 상황을 무서워하고 피하며 자신이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상황만을 선택하고 행동한다고 하였다(Bandura, 1977). 즉 과제난이도 선호(Task Difficulty Preference)란 자신이 통제하고 도전적인 과제를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 표출된다는 것이다(Bandura, 1993).

3. 그릿

가. 그릿의 개념

그릿은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인내 및 노력의 꾸준함(Perseverance of effort)과 쉽게 변하지 않는 열정 및 흥미의 지속성(Consistency of interests)으로 정의된다(Duckworth et al., 2007). 또한, ‘구체적으로 상황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힘’을 말하며(Duckworth, Peterson, Matthews, & Kelly, 2007), 그 가운데 최근 장기적인 목표성취를 위한 인내와 노력 및 열정이라 정의되므로 학교에서의 성취 역시 지능이나 이전 학업성취와 더불어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황매향, 하혜숙, 김명섭, 2017).

처음 국내에서는 그릿을 명확하게 정의한 용어가 없었으며 우리말로 집념, 투지, 끈기 등과 같이 혼용되기도 하였는데(최영현, 2019; 한상춘, 2017), 이러한 용어들은 관심과 노력이라는 그릿의 특성을 포괄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그릿은 단순히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가리키는 개념이 아니라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당면할 수 있는 걸림돌, 좌절, 실패 등에도 굴하지 않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며 절대 포기하지 않는 태도를 뜻하는 개념이다(이정림,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어 그대로 ‘그릿’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더크워스(2016)는 GRIT 『IQ, 재능, 환경을 뛰어넘는 열정적 끈기의 힘』에서 ‘자신의 분야에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은 명확한 장기적인 목적이 있었으며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실패를 겪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과 흥미가 지속하는 특성이 있다.’라고 하였다. 남미정(2018)은 그릿이 개인의 태도나 동기, 인성 등을 강조한 비인지적인 능력으로, 높은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타고난 재능이나 능력보다 꾸준히 연습하고 노력하는 습관이라고 하였다.

그릿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황광원(2017)은 그릿이 힘든 상황이나 다양한 분야에서의 성취와 관련성이 크며 특정 영역을 넘어 대학 생활 및 성인기의 성공적 적응을 강력하고 안정적으로 예측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역량으로 여기게 된다고 하였다. 또 정헬렌(2011)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공을 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은 결과에서 뛰어난 성취를 얻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임을 밝

했다.

그것은 개인의 긍정적인 측면을 연구하여 행복과 성장을 지원하는 긍정심리학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데, 성장과 자아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인내하는 심리적 특성으로, 긍정심리학의 핵심 중 하나인 긍정적 특질과 유사하다고 하였다(박상미, 2019). 이러한 긍정적 특성은 개인이 계발할수록 최상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이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복감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Park & Peterson, 2008).

그릿에 관한 연구는 교육이나 사회, 경력개발 분야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박상미, 2019), 최근에는 그릿이 주관적 성취인 삶의 만족, 행복 추구 태도, 안녕감에도 유효한 예측력을 보인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Jin & Kim, 2017; Singh & Jha, 2008; Vainio & Daukantaitė, 2016; 김유민, 2018, 재인용). 즉 그릿이 높은 사람일수록 단순한 즐거움보다 행복의 의미를 추구하며, 삶의 높은 만족도와 양호한 안녕감을 나타낸다고 하였다(Von Culin, Tsukayama, & Duckworth, 2014).

나. 그릿의 구성 요소

김주환(2013)은 그의 저서에서 그릿을 갖추기 위한 요소로 네 가지를 제시하였는데, 첫째는 스스로 노력하면 더 잘할 수 있으리라는 능력 성장에 대한 믿음(Growth mindset)이다. 둘째는 역경과 어려움을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회복 탄력성(Resilience)이고, 셋째는 자기가 하는 일 자체가 재미있고 좋아서 하는 내재동기(Intrinsic motivation)이며, 넷째로는 목표를 향해 불굴의 의지로 끊임없이 도전하는 끈기(Tenacity) 등이다.

그릿의 다양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학교 생활 적응(하혜숙, 임효진, 황매향, 2015), 학업 적응(임효진, 하혜숙, 2017), 학업성취(이수란, 손영우, 2013; 이정림, 2015; 이정림, 권대훈, 2016; 한상춘, 2017; Rojas et al., 2012), 자기주도학습 역량과 조직몰입(원명희, 2017), 자기조절학습능력과 영재교육 만족도(주영주, 김동심, 2016), 고등학생의 교육 만족도(주영주, 김동심, 2016), 대학 생활 만족도 및 소속감(Bowman et al., 2015) 등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학업적 성취 및 고된 훈련 통과 여부 등 개인의 성과를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또 더 나아가서 결혼 생활, 삶

만족도, 목표에 대한 긍정적 인식 등을 설명하는 강력한 예측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이수란, 안태영, 박서단, 양수진, 2021).

Duckworth, Peterson, Matthews, & Kelly(2007)의 연구에 따르면, 그릿은 성실성, 자기 통제감(self-control)과 유사한 면이 있지만, 관심과 목표의 지속성, 자기 결정성 등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특히 다양한 성격 특성 중 성실성과 유사한 측면이 있는 변인이지만, 성실성은 학업성취를 예측하지 못하는 반면 그릿은 의미 있는 예측력을 갖는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첫째, 상관분석에서 그릿이 다른 성격 요인에 비해서 성실성과 강한 정적상관을 보이는 것, 둘째, 공부 시간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는 변인이 그릿 및 성실성이라는 점은 두 개념이 유사한 속성을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이수란, 손영우, 2013).

위와 같이 성실성과 그릿 사이에 상당한 유사성이 있으나, 그릿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릿, 성실성 두 개념의 차이점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 Duckworth & 동료들(2007)의 연구에서 그릿과 성실성은 높은 정적상관을 보이는 개념이지만, 각 변인이 예측하는 바는 달랐다. 성실성은 규칙을 지키는 것, 기준에 맞게 자신을 관리하는 측면이 포함되는 반면, 그릿은 뚜렷한 자신만의 목표를 갖고 지속적으로 인내하며 열정을 쏟는다는 점에서 구분된다고 설명하였다.

그릿의 독특성은 연구를 통해 확인되고 있으나 현재 그릿 척도가 그릿의 정의를 제대로 구현한 것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수란과 손영우(2013)는 ‘무엇이 뛰어난 학업성취를 예측하는가?: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과 투지(Grit)’에서 Duckworth와 그의 동료들(2007)이 개발한 Original Grit Scale(Grit-O)을 번안하고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그릿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Duckworth 등(2007)의 Grit-O 척도와 Duckworth와 Quinn(2009)의 Grit-S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고 있다(이선형, 2020).

4.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

가.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의 개념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은 자기효능감의 개념을 진로 분야에 적용한 것으로써, 먼저 Bandura(1977)에 의해서 처음 소개된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의 개념을 살펴보면,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위해 어떠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다. Bandura(1977)는 자신에게 주어진 어떠한 과제에 대한 할 수 있다는 신념이 자기효능감이라고 하였으며, 자기효능감은 4가지의 학습 경험에서 획득된다고 하였는데, 정서적 각성, 대리 경험, 사회적 설득이나 격려, 수행성취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정서적 각성은 기분이 긍정적일 때 효율적으로 판단하고 기분이 나쁠 때는 비효율적으로 판단하는 정서로 인한 것을 말하며 (Kavanagh & Bower, 1985), 둘째, 대리 경험은 타인의 성취를 보고 대리 경험으로 자신도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자기효능감을 얻는 것을 말한다. 즉 개인은 다른 사람의 성공적인 성취를 보거나 상상하면 자신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Bandura, Adams, Hardy & Howells, 1980). 셋째, 사회적 설득은 성공 할 수 있다고 주변에서 설득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극복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할 수 있도록 가능케 하는 것을 말한다(Schunk, 1989). 넷째, 수행성취는 자기효능감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원천으로(Bandura, Adams & Beyer, 1977), 일반적으로 성공은 자기효능감을 높게 만들고, 실패는 자기효능감을 낮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패하였을 때, 극복하기 위해 노력을 하여 그 위기를 넘게 된다면 자기효능감이 높아진다는 것인데, 실패를 많이 했다고 해서 자기효능감이 낮다고 단정 지을 순 없다는 것이다.

Betz와 Hackett(1981)는 자기효능감이 인간 행위와 관련된 다양한 심리 변인을 설명하고 예측할 때 유용하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최초로 자기효능감 이론을 진로 분야에 적용하였다. 이 두 학자는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 선택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자기효능감이 진로 선택, 진로개발, 진로 행동, 성취 행동 등과 관련될 것이라고 보았으며, 진로발달 모델에 자기효능감을 중요한 변인으로 포함해 진로와 직업 분야에서의 진로 자기효능감을 개념화하였다(강정은,

2008).

Taylor & Betz(1983)는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 결정과 관련된 과업에 있어 개인이 자신의 진로 목표를 달성하는데 관련된 측면에 대한 유능감과 신념을 말한다고 하였다. 이현주(2000)는 특정 직업이나 진로에 대한 효과적인 의사결정 및 선택, 지속적인 계획 추진에 영향을 주며, 진로 행동을 성공적으로 해내는 구체적인 수행영역과 관련된 개인의 능력에 관한 자신의 지각을 의미하고,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을 직업 선택과 진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자각하는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즉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진로 결정과 관련하여 갖는 긍정적인 기대감 및 효능감이라고 하였다.

이현림(2003)은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이 자신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신념으로 정의하였고, 임은경(1998)은 진로 결정, 진로 태도 등과 같은 다양한 변인들과 관련이 있음을 밝히면서, 많은 연구에서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 관련 행동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으로 자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였고(이기학, 이학주, 2000), 김도연(2011)은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제시하였다.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에 관한 다양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개인적 요인을 들 수 있는데,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의 직업정보, 목표설정, 진로계획, 문제해결 자기평가 등 다섯 개 하위영역 중 장래계획수립, 문제해결, 자기평가 효능감에서 더 높은 성취 수준을 보이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은 성취 수준을 보인다고 했다(이현주, 2000). 이은경(2001)은 중학생과 고등학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하여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아진다는 결론을 얻었으며, 다른 연구에서는 대학교 4학년의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이 가장 높았다는 보고도 있다(강희순, 2010).

환경적 요인 중 부모의 요인에서는 개인의 진로발달과정에서 성취 수준과 영역, 의사결정 과정의 모든 부분에서 부모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으며(Lopez & Andrews, 1987), 부모는 특히 교육적인 발달과 진로발달 영역에서 자녀를 돕고 싶어 한다고 하였고(Palmer & Cochran, 1988), 청소년은 진로발달 영역에서 부

모에게 도움을 받으려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도 있었다(Kotrlík & Harrison, 1989). 그리고 프로그램 영역에서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대부분 대학 입시 준비로 본인의 진로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할 기회가 많지 않았고 따라서 대학생이 고등학교까지 익숙한 수동적 교육을 벗어나 본인이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학습을 설계하는 한편 올바른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심리·적성검사나 진로 상담 등의 진로개발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이중찬, 2013).

남미숙(1998)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을 연구하여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고 부모의 교육적 기대가 큰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이 높다고 하였고, 부모와 자녀 간의 진로에 관한 대화가 원활할 때 부모는 자녀의 진로 발달 정도와 자녀의 미래에 관한 생각을 이해할 수 있고 자녀들은 자신의 미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얻으며 생활에 만족을 느낄 수 있다는 연구도 있었다(이은정, 장윤옥, 2008).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가정적 요인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기영락과 임성택(2010)의 전문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청소년의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밝혔다.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의 수준에 따라 낮은 수준의 개인은 높은 수준의 개인에 비해 진로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과제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확신감이 낮았다(Taylor & Betz, 1983). 또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 태도 성숙을 예언하는 변인으로써 전체 변량의 40%를 설명하는 요인임을 보고했고, 따라서 개인의 진로 결정 과정에 있어서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이 중요한 요인임을 밝혔다(이기학, 이학주, 2000).

나.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의 구성 요소

자기효능감이 진로 발달 분야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새로운 관점과 함께 Hackett & Betz(1981)가 진로 장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진로 자기효능감(Career Self-Efficacy)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제안한 이후 Taylor와 Betz(1983)는 진로 미결정을 이해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자기효능감 이론을 응용하였고, 이와 관련된 척도인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 척도(Career Decision Self-Efficacy Scale: CDMSE)를 개발하였다. Betz와 Voyten(1997)은 Taylor와

Betz(1983)의 CDMSES를 25가지 문항인 단축형(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Scale-Short Form: CDMSE-SF)으로 재구성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CDMSE-SF의 구성요인은 직업정보 수집, 자기평가, 목표선택, 계획수립, 문제해결인데, 구성요인별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직업정보 수집으로 관심이 있는 직업을 찾고 이와 관련하여 취업할 수 있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자신감을 의미한다. 둘째, 자기평가는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 자신의 가치, 능력, 욕구 등을 명확하게 파악 및 분석할 수 있는 자신감을 의미하며, 셋째, 목표 선택은 자신의 학업이나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고, 넷째, 계획수립은 진로와 관련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의미한다. 다섯째, 문제해결은 진로 경로에서 난관에 봉착했을 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의미한다(Miguel, Silva, & Prieto, 2013).

즉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와 관련하여 목표설정, 직업정보 수집, 직업적 과제의 수행 과정 중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워 자신에 대해 평가하는 과정에서 증진되며 형성된다고 하는 것이다(이은주, 2006). 또 이은경(2001)은 중학생과 고등학생, 대학생까지 포함한 연구대상을 고려하여 이기학과 이학주(2000)가 활용한 척도의 문항을 수정하여 타당화하고, 요인분석을 통해 기존의 Taylor와 Betz(1983)의 CDMSES의 5가지 하위요인 중 자기평가를 제외하여 4가지로 축소하여, 척도를 목표 선택, 직업정보, 문제해결, 미래계획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이은진(2001)이 번역한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기며 그 이유는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은 진로 미결정 수준을 유의하게 예측하여 진로 결정 과정에서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의 중요한 역할을 다시 확인하기 때문이다(Taylor & Betz, 1983). 즉 단축형의 근간이 되는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 척도(CDM SES; Taylor & Betz, 1983)는 대학생의 진로 결정에 요구되는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다는 개인의 신념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5. 부모의 양육 태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관계

Schunk와 Pajares(2001)는 영·유아기 때부터 가정 내에서 부모와 양육자들은 자기효능감을 발달시키는 데 매우 중요하게 비중이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자기효능감에 관한 생의 초기 정보는 가정 내에서 경험하는 부모와의 양방향적 상호작용의 형태로 제공된다고 한다. Bandura(1986)의 상호결정론에 의한 성취가 그것이다.

부모의 양육 태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역시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우희정과 이숙(1994)은 학습자가 자기효능감을 키울 수 있는 경험은 자신이 속한 가족 내에서 먼저 이루어진다고 하였으며, 특히 부모와의 문화생활 공유 등과 같은 활동을 통한 정서적, 정보적 지원은 학습자에게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기효능감 발달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즉 부모의 양육 행동이 자녀의 자기효능감 발달의 직접적인 영향이라는 것이다(Juang & Silbereisen, 1999).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가정에서의 상호작용과 다양한 정서적 경험을 통해 발달하며 부모와 자녀의 관계 형성에 따라 자녀에게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발달시키는데, 학업 수행 역시 긍정적 발달의 경우 자신감과 확신을 형성하게 되고, 부정적인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즉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의 행동 및 태도를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자녀의 내면 상태가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자녀의 학업성취에 도움이 되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부모의 적절한 양육 태도가 필요하고 부모의 양육 태도에 대한 자녀의 올바른 이해도 필요하다(최슬기, 2016).

부모의 양육 태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관계에 관한 많은 선행연구에서도 두 변인 간에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김연수, 2008; 송미라, 2013; 하영화, 2009), 자녀가 부모의 양육 태도를 성취 지향적이고 애정적인 것으로 지각할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높아지고, 비성취적이고 적대적인 것으로 느낄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낮아진다는 것이다(송지연, 2005; 신경아, 2005; 최윤화, 황혜자, 2003). 또 부모의 양육 태도를 수용적, 자율적이라고 지각하는 것이 거부적, 통제적이라고 지각하는 것보다 학업적 자기효능감 발달에 더 긍정적인

것으로 밝혀졌다(최운화, 황혜자, 2003).

부모의 양육 태도와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보면, 송미라(2013)는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 태도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정적 영향을 주는 동시에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통해서 주관적인 안녕감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였고, 아버지의 양육 태도가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미화, 2006). 그리고 애정적인 부모의 양육 태도, 정서지능, 학업적 자기효능감 모두가 직접적으로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데 이 변인 중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업성취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유미영, 2010).

지금까지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부모의 양육 태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에 관한 많은 연구가 주로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에는 자기효능감이 청소년의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부각되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이시은, 2009), 구분용과 유제민(2010)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긍정적 관여와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여학생의 경우 자기효능감이 부모의 긍정적 관여와 진로 결정을 매개한다고 보고하였다. 또 청소년이 부모의 애정적임, 자율적임, 성취적임, 합리적임을 높게 지각하는 집단이 낮게 지각하는 집단에 비해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도 있다(박완성, 김미숙, 2009). 최임숙과 윤석환(2016)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의 양육 태도가 대학생의 자아 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부분 매개 역할을 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 결과는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 태도는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으며, 부모의 양육 태도가 애정적이고 성취적이며 자율적일수록 자녀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향상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부모의 양육 태도와 학업성취 및 학교생활 적응 간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김유진, 2018).

6. 부모의 양육 태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사이에서 그릿의 매개효과

그릿의 사전적 의미는 투지, 끈기, 불굴의 의지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한국어의 단 한마디로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성을 보면 그들의 회복력이 강하고 근면했으며, 특별하게 결합된 열정과 끈기가 있었고,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릿이 있었다. Duckworth와 Quinn(2009) 역시 자기효능감과 성취목표, 낙관적 귀인과 같은 학습의 동기적인 요인과 관련되며, 시간이나 상황이 달라져도 비교적 쉽게 변화하지 않는 개인의 성격적 특질로 여겨진다고 주장하였다.

부모의 양육 태도와 그릿 사이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부모와 자녀 간 자율성 지지의 상호작용은 더 나은 자기조절, 학문참여를 해왔다고 하는 연구가 있었고(Roth et al., 2009; Vasquez et al.), Duckworth(2016)는 청소년이 그릿의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부모뿐만 아니라, 멘토, 현명한 교사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부모가 갖는 자녀학습에 관한 관심과 열의가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제시되었다(김미숙, 이성희, 백선희, 최예솔, 2015). 또 한정옥, 박선미(2018)는 부모의 애정과 사랑을 느끼는 중학생은 높은 그릿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지지적이고 긍정적인 양육 태도가 자녀의 그릿을 증진시키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용진, 나승일, 2019; 이선희, 최자은, 2019).

또한, 이미라와 전향신(2021)은 부모의 따스함, 자율성 지지, 구조제공은 학업 열의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으며, 부모의 따스함과 구조제공은 그릿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또 Mandelbaum(2018)은 부모와 자녀 간의 긍정적 관계가 그릿의 수준을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으며, 부모가 따스함을 가지고 자녀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의사소통을 통하여 규칙을 제시하는 등의 긍정적인 양육 태도는 그릿을 증진시킨다고 하는 연구결과도 있었다(김태명, 이은주, 2017).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의 긍정적 양육 태도가 아동의 그릿 하위요인인 열정과 끈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아동이 부모의 양육 태도를

긍정적으로 인지할수록 아동의 그릿 수준이 높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이선행, 2020). 더 나아가 김유민(2018)은 긍정적 양육 태도와 부정적 양육 태도가 그릿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긍정적 양육 태도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말한 반면, 이서영(2020) 또한 부모의 긍정적 양육 태도인 자율성지지, 구조제공, 따스함이 그릿에 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나, 부모의 부정적 양육 태도인 강요, 거부, 비일관성은 그릿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그릿은 주로 학업과 관련되어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유영란, 유지원, 박현경(2015a)은 그릿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고, 다른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있었다(이서정, 2018; 한상춘, 2017). 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그릿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며(Cooper, 2014),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들일수록 내적 통제소재를 취하여 좌절상황에서도 시간과 노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충동을 적절히 제어한다고 주장하였다(Judge & Bono, 2001). 이러한 사실은 그릿이 높은 학생들이 학업적 자기효능감 수준도 높게 나타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을 지지하는 것으로 여길 수 있다.

높은 그릿을 지닌 사람의 경우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실패에 직면하게 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장기간의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높은 학업성취 및 학업적응을 이루어낸다는 연구(Duckworth & Eskreis-Winkler, 2013)나 그릿의 하위 변인 중 노력의 지속성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 변인들 중 자기조절 효능감과 정적으로 가장 높은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는 연구(한상춘, 2017)에서 보였듯이 그릿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유의미하게 정적 상관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다양한 연구에서 그릿과 학업적 자기효능감과의 관련성을 찾을 수 있었는데, 먼저 유영란, 유지원, 박현경(2015a)은 일반계 남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그릿의 하위요인 중 지속적인 관심이 꾸준한 노력을 거쳐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었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했다. 그리고 그릿의 하위요인 중 지속적인 관심과 객관적 추론은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를 그릿의 다른 하위요인인 꾸준한 노력으로 매개되었다고 하였다(유영란, 유지원, 박현경, 2015b). 그 연구에 따르면 그릿의 하위요인인 꾸준한 노력은 자기조절학습효능감에 긍정적인 직접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호진 등(2016)의 연구에서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그림이 자기효능감과 자기조절을 예측하였다.

지금까지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그림은 부모의 양육 태도에서 영향을 받고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어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잘 해낼 수 있다는 스스로의 긍정적인 믿음을 줄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김선정(2020)은 부모의 긍정적 양육 태도와 부정적 양육 태도는 그림, 학업 열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매개효과 검증 결과 그림은 부모의 긍정적 양육 태도에서 학업 열의로 가는 경로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 태도에서 학업 무기력으로 가는 경로는 긍정적 양육 태도와 부정적 양육 태도 모두에서 그림이 완전 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대학생들의 부모 양육 태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그림이 매개하는 요인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그림이 학업의 수행에서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기여하는 동기적 영향력을 감안할 때, 본 연구를 통해 그림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긍정적인 매개효과가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7. 부모의 양육 태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이에서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자아개념 및 자아효능감 형성의 기초는 부모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며, 부모는 자녀가 인생에서 처음 만나는 교사이자 동일시를 위한 모델이기 때문에 부모를 통해 자신의 행동 규범을 형성하게 된다(Bandura, 1986). 즉 부모의 태도, 가치관, 행동 등은 자녀의 자기효능감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부모의 양육 태도를 통해 가정 내에서 먼저 형성되고 발달시킨다는 것이다.

사회인지 진로 이론(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에 의하면, 개인의 진로 선택 및 발달 과정은 개인, 심리적 요인들과 사회 환경적 영향들의 상호작용으로서 영향을 주며 이루어진다(Lent, Brown, Hackett, 1994). 부모는 진로발달 과정을 수행하는 자녀에게 가장 가까운 모델이 되어주고, 진로 목표와 관련한 다양한 경험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한다. 그리고 자녀가 진로 목표를 성취해 나가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는 역할을 하며, 부모는 자녀의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여주는 중대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구본용, 유제민(2010)의 부모의 긍정적 관여와 자기효능감이 대학생의 진로 결정 과정과 진로 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나 박완성, 김미숙(2009)의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 태도와 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 등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부모의 양육 태도와 자녀의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이 정적으로 유의미하다는 일관된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더 나아가 김영숙(2000)은 어린 유아를 연구하여 부모의 양육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연구하였으며, 어머니의 양육 태도가 더 적극적이고 직접 작용할 때 유아의 자기효능감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장수현과 유성경(2014)은 일의 목적과 의미 및 부모 지지의 관계에서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보고하였으며, 부와 모의 자율적 양육 태도는 진로 소명을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이 부분 매개하였다는 연구(김소희, 박지영, 손영우, 2018) 등 다양한 연령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부

모의 양육 태도가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살펴보면, 장경문(2005)은 대학생이 전체 발달 과정에서 청소년의 후기에 해당하며, 이 시기에서는 부모에게 심리적으로 독립하고 장래의 직업적 진로를 결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실제적인 준비를 해나가는 시기라고 하였다. 따라서 대학생에게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은 모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다양한 진로와 자기효능감의 연구에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로 성숙 태도 및 진로포부와 관계 변인으로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연구(강경찬, 1996), 등이 있다. 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진로 의사결정과 자기효능감의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고한 연구(전경애, 2004), 자기효능감이 진로 의사결정에 영향력이 있음을 설명한 연구(김민정, 2003), 자기효능감은 진로 의사결정에 유의한 영향이 있다고 보고한 연구(박용균, 2007)도 있다.

또 학업성취가 진로 선택과 상관관계가 높다는 연구(Crites, 1973)가 있었으며, 황매향, 임은미, 김동일(2004)의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접근할수록 자신의 학업 역시 주도적으로 자신에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수행해나갈 수 있다고 했다. 대학 신입생을 대상 연구에서 진로 결정 수준이 높을수록 학업에 대한 높은 자신감뿐만 아니라 학업적 적응이 높음을 확인하였다(장미경, 한상희, 2003). 즉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도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과 학업적 자기효능과의 관계를 연구한 다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여선영(2016)은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고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 결정 수준 간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매개 변인으로 영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그러므로 진로 결정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김장희, 정성수(2012)의 연구에서는 진로성숙도는 학업성취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고 또 진로성숙도는 직업 흥미, 전공 일치도에 비해 상대적 예측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이선(2008)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기대지각이 자기효능감과 진로 태도성숙에 영향을 미쳐 학업성취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였다. 즉

진로 태도 성숙도가 높은 학생에게서 학업성취가 높게 나타나며, 따라서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을 가장 강력하게 예측하는 변수로 학업적 자기효능감인 것을 알 수 있다.

더구나 학업의 성취 정도에 따라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서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은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높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과 학업적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의 수가 많지 않음을 감안할 때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에서 꼭 필요한 연구라고 할 수 있겠다.

8. 부모의 양육 태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이에서 그릿과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먼저 그릿과 진로에 대하여 살펴보면, 황서윤(2017)은 목표의 방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장기간에 걸쳐 보이는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뜻하는 그릿(Duckworth et al., 2007)과 자신의 목표와 관심, 능력에 대한 명확하고 안정된 상태(Holland, 1985)를 의미하는 진로 정체감은 서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또 황은희(2017)는 그릿과 진로 준비 행동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어, 대학생의 그릿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 준비 행동의 수준이 증가한다고도 하였다.

그릿의 노력 지속성과 진로 흥미 관련 변인들과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흥미 유지와의 일관성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연구도 있었다(최영란, 2021). 다른 연구에서는 그릿에서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 진로 결과기대, 전공 흥미, 진로 준비 행동으로 가는 경로모형은 통계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강명희, 윤성혜, 김도희, 류다현, 2016).

한편, 그릿과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 간에는 관련이 있고 그릿은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고 있으며(유영란, 유지원, 박현경, 2015), 그릿과 진로 준비 행동 간에는 관련이 있고 그릿은 진로 준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하였다(김미숙, 이성희, 백선희, 최예솔, 2015). 김광범과 김상태(2020)는 그릿 수준과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 준비 행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릿은 진로 준비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진로 준비 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사회인지 이론에 의하면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의 원천은 개인적 성공 경험, 대리 학습(vicarious learning), 사회적 설득, 그리고 심리 감정적 상태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긍정적 피드백이 없는 상황에서도 이를 잘 견디며 지속적이고 끈기 있게 노력하는 사람일수록 높은 자기효능감을 되며, 이를 통해 그릿과 자기효능감의 정적관계를 추론해볼 수 있다(황윤정, 김민희, 2014).

다음으로 부모의 양육 태도와 그릿,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지은(2021)은 부모의 양육 태도, 그릿,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부모의 양육 태도가 애정적이고 긍정적일수록 자기효능감을 높여주며, 부정적일수록 자녀의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은 낮아진다고 하였다. 그러나 부모의 통제적 양육 태도와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은 약한 부적 상관을 보이나, 자율적 양육 태도의 효과 크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난다고 하는 연구도 있다(김소희, 박지영, 손영우, 2018).

선순자(2021)는 그릿은 대학생이 미래에 홀로서기를 위한 진로 선택을 위해서는 자신의 결정에 대한 자신감과 그 결정을 믿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므로, 진로 결정 수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으나, 반면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의 진로 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서 그릿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이중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박예영, 이동형(2014)의 연구에서는 대학교 고학년이 저학년보다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이 높다고 확인되었다.

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그릿과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그릿과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검증한 사례는 그 수가 매우 적으며, 진로에 관한 다른 변인의 연구 결과에서 유추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를 통해 부모의 양육 태도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그릿과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 태도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그릿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전국에 소재한 4년제 대학에서 재학 중인 대학생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로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설문하였으며,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pm 4.85\%$ 이다.

인터넷 및 모바일 설문 특성으로 결측값이 있거나 불성실한 응답자가 많아 응답자 1,131부 중 722부는 제외한 후 409명의 데이터를 분석하였고, 이 중 남학생이 202명(49.4%), 여학생이 207명(50.6%)으로 참여 비율은 비슷하였으며, 학년별로 살펴보면 1학년이 77명(18.8%), 2학년 107명(26.2%), 3학년 92명(22.5%), 4학년 133명(32.5%) 참여하였다. 참여 학생은 전국적으로 분포하였으며, 전공은 인문·사회계열(177명, 43.3%), 자연·공학계열(163명, 39.9%)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표Ⅲ-1 연구대상의 개요

	구분	<i>N</i>	%
성별	1) 남자	202	49.4
	2) 여자	207	50.6
학년	1) 1학년	77	18.8
	2) 2학년	107	26.2
	3) 3학년	92	22.5
	4) 4학년	133	32.5
계열	1) 인문, 사회계열	177	43.3
	2) 자연, 공학계열	163	39.9
	3) 기타	69	16.8
	전체	409	100.0

2.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 태도 척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 그릿 척도,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 척도 등의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사용한 측정 도구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부모의 양육 태도 척도

본 연구에서 부모 양육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Skinner, Johnson & Snyder(2005)가 동기축진적 관점에서 제작한 청소년용 부모의 양육 태도 척도(PSCO_A)를 김태명과 이은주(2017)가 우리나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한국판 청소년용 동기모형 양육 태도 척도(PSCO_KA)를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긍정적 양육 태도로 따스함, 자율지지, 구조제공 등이 있고, 부정적 양육 태도로 거부, 강요, 비밀관성 등 6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긍정적 양육 태도를 살펴보면 각 4문항씩이며 문항의 예를 들면, 따스함에는 ‘부모님은 나를 특별하게 여기신다.’ 등이고, 자율지지에는 ‘부모님은 나를 믿어주신다.’ 등이며, 구조제공에는 ‘내게 문제가 있을 때 부모님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도움을 주신다.’ 등 총 12문항이다. 부정적 양육 태도 역시 각 4문항씩이며 문항의 예를 들어보면 거부는 ‘부모님은 내가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신다.’ 강요에는 ‘부모님은 나에게 이래라저래라 하신다.’ 비밀관성은 ‘부모님은 나에게 대한 규칙을 자주 바꾸신다.’ 등 총 12문항이다. 리커트 척도는 매우 그렇다(4점), 그런 편이다(3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등 4점 척도이다.

부정적 양육 태도 문항은 역코딩하였으므로 문항의 전체 총점이 높을수록 부모의 긍정적 양육 태도를 높게 지각한다고 할 수 있다. 김태명과 이은주(2017)의 연구에서 PSCO_KA의 내적합치도는 따스함, 거부, 자율지지, 강요, 구조제공, 비밀관성의 6개 모두 Chronbach's α 값이 .752 ~ .882로 나타나 양호한 수준의 신뢰도를 보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92로 나타났다. 하위요인의 문항 구성과 본 연구의 신뢰도 계수는 표Ⅲ-2와 같다.

표Ⅲ-2 부모 양육 태도의 문항 구성과 본 연구의 신뢰도 계수

구분	하위영역	문항	문항 수	Cronbach's α
긍정적 부모 양육 태도	따스함	1, 2, 3, 4	4	.85
	자율지지	9, 10, 11, 12	4	.88
	구조제공	17, 18, 19, 20	4	.79
긍정적 부모 양육 태도			12	.89
부정적 부모 양육 태도	거부	5*, 6*, 7*, 8*	4	.81
	강요	13*, 14*, 15*, 16*	4	.78
	비일관성	21*, 22*, 23*, 24*	4	.84
부정적 부모 양육 태도			12	.90
전체				.92

*은 역채점 문항임.

나.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Bandura(1986)의 자기효능감 이론을 바탕으로 김아영과 박인영(2001)이 개발하고 타당성을 검증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8문항으로 하위구성요인은 과제난이도 선호(10문항), 자기조절 효능감(10문항), 자신감(8문항) 등이다.

이 측정 도구의 Likert 척도를 5점 척도로 실시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역채점 문항은 역코딩하였고, 따라서 문항의 총점이 높을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더 높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문항의 예를 들면 과제난이도 선호 문항은 ‘나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는 것이 재미있다.’ 등이 있고, 자기조절 효능감에는 ‘나는 수업 시간에 새로 배운 것들을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쉽게 연결시킬 수 있다.’ 등이 있으며, 자신감 문항은 ‘토론을 할 때, 혹시 창피를 당할까 봐 내 의견을 제대로 발표하지 못한다.’ 등이 있다.

김아영과 박인영(2001)의 연구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내적 합치도

(Cronbach's α)는 과제난이도 선호가 .84, 자기조절효능감이 .76, 자신감이 .74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전체 신뢰도는 .88로 나타났다. 각 하위요인의 문항 구성과 본 연구의 신뢰도 계수는 다음 표와 같다.

표Ⅲ-3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문항 구성과 본 연구의 신뢰도 계수

구분	하위영역	문항	문항 수	Cronbach's α
학업적 자기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	1, 2*, 3*, 4, 5, 6*, 7*, 8, 9, 10	10	.90
	자기조절 효능감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0	.87
	자신감	21*, 22*, 23*, 24*, 25*, 26*, 27*, 28*	8	.86
전체			28	.88

*은 역채점 문항임.

다. 그릿 척도

본 연구에서 그릿을 측정하기 위해서 Duckworth와 그의 동료들(2007)이 Original Grit Scale(Grit-O)을 개발하고 이를 이수란과 손영우(2013)가 변안하고 타당성을 입증하였으며 이수란 외(2021)가 측정학적 문제와 개념적 본질을 중심으로 재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장기적인 목표를 일관되고 꾸준히 지속하는 관심의 일관성(Consistency of Interests)을 측정하는 요인, 역경과 장애물을 참고 견디며 노력하는 노력의 꾸준함(Perseverance of Effort)을 측정하는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심의 일관성의 예를 들면 ‘나는 종종 목표를 세우지만, 나중에 그것과는 다른 일을 하곤 한다.’ 등 모두 역채점 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노력의 꾸준함 역시 ‘나는 부지런하다.’ 등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총 12개 문항이다.

Likert 5점 척도이고 ‘매우 그렇다(5점)’에서 ‘전혀 아니다(1점)’까지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역채점 문항을 역코딩하여 문항의 총점이 높을수록 그릿이 높음을 의미한다. Duckworth와 그의 동료들(2007)이 Original Grit Scale(Grit-O)을 개발하

였을 때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73 ~ .83이었고, 이수란과 손영우(2013)의 연구에서는 .79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75로 나타났다. 하위요인의 문항 구성과 본 연구의 신뢰도 계수는 표Ⅲ-4와 같다.

표Ⅲ-4 그릿의 문항 구성과 본 연구의 신뢰도 계수

구분	하위영역	문항	문항 수	Cronbach's α
그릿	관심의 일관성	1*, 3*, 5*, 7*, 10*, 12*	6	.72
	노력의 꾸준함	2, 4, 6, 8, 9, 11	6	.74
전체			12	.75

*은 역채점 문항임.

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

본 연구에서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Betz와 Voyten (1997)가 Crites(1978)의 진로성숙도 모형에 기초한 CDM SES (Career Decision Making Self- Efficacy Scale ; Taylor & Betz, 1983)의 50문항 중에서 5개의 하위척도별로 5개 문항을 선별하여 구성한 총 25문항의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 단축형 척도(CDM SE - SF ; Career Decision Making Self- Efficacy Short Form)를 이은진(2001)이 번역하여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진로 결정에 요구되는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다는 개인의 신념 정도를 측정한 것으로, 하위척도는 자기평가, 직업정보 수집, 목표선정, 계획수립, 문제해결 등으로 구성되었다. 기본개념은 Crites(1978)의 진로성숙도 모형에서 밝히고 진로성숙도 척도를 통해 측정된 5가지 진로 선택 확신도에 근거한 것이다.

Likert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까지 선택하도록 하였고, 역채점 문항은 없으므로 문항의 총점이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하며, 하위척도별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6에서 .89였고, 전체 점수에 대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7이었다. 이은진(2001)의 연

구에서는 .92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3이었다.

하위요인의 문항 구성과 본 연구의 신뢰도 계수는 표Ⅲ-5와 같다.

표 Ⅲ-5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의 문항 구성과 본 연구의 신뢰도 계수

구분	하위영역	문항	문항 수	Cronbach's α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	직업정보	1, 10, 15, 19, 23	5	.72
	목표설정	2, 6, 11, 16, 20	5	.75
	진로계획	3, 7, 12, 21, 24	5	.77
	문제해결	4, 8, 13, 17, 25	5	.71
	자기평가	5, 9, 14, 18, 22	5	.76
			25	.93.

3. 연구 절차 및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 수집된 응답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6.0과 PROCESS macro 4.2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 번째, 측정 도구의 문항들 사이의 내적합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수치를 산출하였다.

두 번째,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하여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자료가 정규분포 가정을 만족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값을 산출하였다.

세 번째, 주요 변수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피어슨의 상관관계 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네 번째, 부모의 양육 태도(긍정적 양육 태도, 부정적 양육 태도), 그릿,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 번째, 부모의 양육 태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그릿과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의 다중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Macro의 Model 4와 Model 6의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통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으며, 부트스트래핑 표본 수는 10,000개로 설정하였다. 부트스트래핑법은 비현실적인 정규성을 가정하지 않아, 매개효과나 다중매개효과 검증 시 더 정확한 추론을 할 수 있다(Hayes, 2013).

IV. 연구 결과 및 해석

1.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부모의 양육 태도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그릿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온라인으로 알아보기 위한 통제변인으로 대학생을 설정하였고,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 성별은 남학생($n=202$, 49.4%)과 여학생($n=207$, 50.6%)이 비슷하게 참여하여 별다른 유의점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학년별 살펴보면, 4학년($n=133$, 32.5%)이 가장 많이 참여하였으며, 2학년($n=107$, 26.2%), 3학년($n=92$, 22.5%), 1학년($n=77$, 18.8%) 순으로 참여하였다. 이로써 대학교 4학년 학생들은 부모에게 독립하여 성숙한 성인으로 생산적인 일을 수행하여야 하며, 앞으로 직업, 결혼, 가족 등과 관련된 일을 책임져야 할 시기로서 자신의 장래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공별로는 인문·사회계열($n=177$, 43.3%), 자연·공학 계열($n=163$, 39.9%)에서 다수를 차지하여 교육, 사범계열($n=16$, 3.9%), 예체능 계열($n=23$, 5.6%), 의·약학 계열($n=25$, 6.1%)보다 진로의 방향이 다변화할 가능성이 많은 전공계열에서 진로에 직결되는 학업적 자기효능감,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 및 그릿에 관심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참여 학생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n=120$, 29.3%)과 경기도($n=84$, 20.5%)의 학생이 절반을 넘게 차지하였으며(50.9%), 다음으로는 부산($n=41$, 10%)으로 수도권이나 대도시권 학생들이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 현황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도의 인구를 합하면 총인구의 절반이 넘으므로(통계청, 2022) 인구수에 따른 참여 비율은 정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는 표IV-1과 같다.

표IV-1 연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i>N</i>	%
성별	1) 남자	202	49.4
	2) 여자	207	50.6
학년	1) 1학년	77	18.8
	2) 2학년	107	26.2
	3) 3학년	92	22.5
	4) 4학년	133	32.5
계열	1) 인문, 사회계열	177	43.3
	2) 교육, 사범계열	16	3.9
	3) 자연, 공학계열	163	39.9
	4) 예체능 계열	23	5.6
	5) 의, 약학계열	25	6.1
	6) 기타	5	1.2
지역별	1) 서울	120	29.3
	2) 부산	41	10.0
	3) 대구	19	4.6
	4) 인천	14	3.4
	5) 광주	10	2.4
	6) 대전	22	5.4
	7) 울산	1	.2
	8) 경기도	84	20.5
	9) 강원도	11	2.7
	10) 충청북도	18	4.4
	11) 충청남도	17	4.2
	12) 전라북도	12	2.9
	13) 전라남도	3	.7
	14) 경상북도	20	4.9
	15) 경상남도	13	3.2
	16) 제주도	1	.2
	17) 세종	3	.7
전체		409	100.0

(*N*=409)

2. 연구 변인의 기술통계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부모의 양육 태도(긍정적 양육 태도, 부정적 양육 태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그릿(관심의 일관성, 노력의 꾸준함),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의 일반적인 경향을 파악하고자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중심경향과 분산성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분포의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왜도, 첨도 값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는 표IV-2와 같다.

표IV-2 연구 변인의 기술통계

변인	최소값	최대값	<i>M</i>	<i>SD</i>	왜도	첨도
부모의 양육 태도	1.00	4.00	3.17	.63	-.51	-.17
긍정적 양육 태도	1.75	4.00	3.16	.47	-.28	-.19
부정적 양육 태도	1.17	4.00	3.09	.54	-.73	.53
그릿	1.00	5.00	3.00	.87	.51	-.12
관심의 일관성	1.17	5.00	2.86	.63	.44	.27
노력의 꾸준함	1.00	5.00	3.25	.68	-.35	.57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1.50	5.00	3.86	.63	-.36	.20
학업적 자기효능감	1.00	5.00	3.16	.80	-.03	-.38

(*N*=409)

먼저 연구 변인의 정규성을 가정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는데, 그 결과 $|왜도| < .80$, $|첨도| < .70$ 으로 나타나, 정규성 가정을 위반하는 기준이 ‘왜도의 절대값은 3 이상이고 첨도의 절대값은 10 이상일 때’라고 한 Kline(2015)의 기준이나 ‘왜도의 절대값이 3 미만이고 첨도의 절대값이 8 미만일 때 정규분포값을 충족한다’고 한 West 등(1995)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본 연구에서 선정한 변인이 모두 정규분포의 가정을 성립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부모의 양육 태도는 긍정적 양육 태도의 평균이 $3.16(SD = .47)$ 이며 부정적 양육 태도의 평균 $3.09(SD = .54)$ 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므로 학생들의 응답은 긍정적 양육 태도에서 부정적 양육 태도보다 ‘그런 편이다’에 더 많이 답하였다고 파악된다. 그러나 긍정적 양육 태도와 부정적 양육 태도 모두 학생들이 부모의 양육 태도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5점 만점에 평균이 3.16이고, 표준편차는 .80으로 학생들이 주로 ‘보통이다’나 ‘그렇다’에 응답하였음을 알 수 있고, 매개 변인 1인 그릿의 평균은 3.00이고($SD=.87$)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의 평균은 3.86($SD =.63$)이다. 그릿의 하위 변인인 관심의 일관성은 5점 만점에 평균이 2.86($SD=.63$)으로 대체로 ‘아니다’, ‘보통이다’의 반응을 많이 보였으며, 노력의 꾸준함은 5점 만점에 평균이 3.25, 표준편차는 .68로 대체로 ‘보통이다’, ‘그렇다’에 많은 반응을 보였으므로 학생들이 관심의 일관성보다는 꾸준한 노력에 더 자신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연구 변인 간 상관관계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부모의 양육 태도(긍정적 양육 태도, 부정적 양육 태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그릿,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피어슨의 상관관계 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그릿과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과의 상관관계를 제외하고는 모두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독립변인인 양육 태도는 종속 변인인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p < .001$ 수준에서 $r = .165$ 의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 매개 변인인 그릿,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과도 각각 $r = .245$ ($p < .001$ 수준), $r = .155$ ($p < .001$ 수준)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이지은(2021)의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 매개 변인과 종속 변인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그릿,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은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각각 $r = .221$ ($p < .001$ 수준), $r = .248$ ($p < .001$ 수준)로 상관관계가 유의하였으며, 이는 윤성혜, 유지원, 유영란(2017)의 연구와도 같은 결과이다.

또 잠재변인을 살펴보면, 양육 태도의 하위변인인 긍정적 양육 태도, 부정적 양육 태도는 양육 태도 전체와 $p < .001$ 수준에서 $r = .696$, $r = .731$ 의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 긍정적 양육 태도와 부정적 양육 태도의 상관관계는 $p < .001$ 수준에서 $r = .852$ 의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잠재변인과 종속변인, 매개변인과의 상관관계도 모두 유의하였다. 긍정적 양육 태도는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p < .001$ 수준에서 $r = .169$ 의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 이는 박혜준, 안도희(2014)와 같은 결과이다. 또 그릿과도 $p < .001$ 수준에서 $r = .177$ 의 유의한 상관을 보였고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과도 $p < .001$ 수준에서 $r = .203$ 의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또 부정적 양육 태도도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p < .001$ 수준에서 $r = .207$ 의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 그릿과 $p < .001$ 수준에서 $r = .294$ 유의하였다. 그리고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과도 $p < .001$ 수준에서 $r = .207$ 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매개변인 1인 그릿과 매개변인 2인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과의 상관관

계를 살펴보면, $p > .01$ 의 수준으로 $r = .089$ 이므로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다.

그 결과는 표IV-3과 같다.

표IV-3 연구 변인 간 상관관계

	양육 태도	긍정적 양육 태도	부정적 양육 태도	그릿	진로 결정 자기 효능감	학업적 자기 효능감
양육태도	1					
양육 태도						
긍정적 양육태도	.696***	1				
부정적 양육태도	.731***	.552***	1			
그릿	.245***	.177***	.294***	1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	.155***	.203***	.215***	0.089	1	
학업적 자기효능감	.165***	.169***	.207***	.221***	.248***	1

** $p < .01$, *** $p < .001$

4. 다중 회귀분석

부모의 양육 태도(긍정적 양육 태도, 부정적 양육 태도), 그릿,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서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으로 설정하고 처음에는 독립변수를 부모의 양육 태도, 그릿,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으로, 2단계에서는 종속변수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그대로 설정하고 독립변수를 부모의 긍정적 양육 태도, 그릿,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으로 하였으며, 3단계에서도 종속변수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그대로 설정하고 독립변수를 부모의 부정적 양육 태도, 그릿,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으로 하였다.

먼저 Durbin-Watson의 값을 통해 오차항이 독립성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였는데, 그 값은 1단계는 2.02, 2단계는 2.016, 3단계는 2.036으로 2에 가까워서 오차항의 독립성이 확인되었다. 또 다중공선성을 확인하는 VIF의 값 1단계, 2단계, 3단계 모두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도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회귀모형을 분석한 결과 1단계 부모의 양육 태도, 그릿,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F=16.442$, $p<.001$), 설명력은 10.2%로 나타났다. 2단계 부모의 긍정적 양육 태도, 그릿,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F=16.442$, $p<.001$, $R^2=.331$), 3단계 부모의 부정적 양육 태도, 그릿,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F=17.128$, $p<.001$, $R^2=.108$).

회귀계수의 매개모형 검증 결과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1단계의 부모 양육 태도의 표준화 계수는 $.087(p>.05)$ 이고, 그릿은 $\beta=.180(p<.001)$,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은 $\beta=.219(p<.001)$ 로 부모의 양육 태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이에서 그릿과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은 정(+)적으로 완전 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단계에서 부모의 긍정적 양육 태도의 표준화 계수는 $.092(p>.05)$ 이고, 그릿은 $\beta=.188(p<.001)$,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은 $\beta=.213(p<.001)$ 으로 역시 부모의 긍정적

양육 태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이에서 그릿과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은 정(+)적으로 완전 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3단계의 부모의 부정적 양육 태도의 표준화 계수는 .112($p < .05$)이고, 그릿은 $\beta = .170$ ($p < .001$),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은 $\beta = .207$ ($p < .001$)로 부모의 부정적 양육 태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이에서 그릿과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은 정(+)적으로 부분 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는 표IV-4와 같다.

표IV-4 부모의 양육 태도, 그릿,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

단계	예측변인	B	β	R^2	ΔR^2	t	p	F	VIF
1	양육 태도	.124	.087			1.784	.075		1.084
	그릿	.185	.180	.109	.102	3.724***	<.001	16.442	1.067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	.310	.219			4.498***	<.001		1.027
2	긍정적 양육 태도	.178	.092			1.904	.058		1.072
	그릿	.191	.188	.331	.110	3.897***	<.001	16.605	1.035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	.302	.213			4.438***	<.001		1.046
3	부정적 양육 태도	.183	.112			2.244*	.025		1.140
	그릿	.174	.170	.108	.113	3.464***	<.001	17.128	1.095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	.296	.209			4.357***	<.001		1.049

주. N=409, 종속 변인: 학업적 자기효능감, * $p < .05$, *** $p < .001$

5. 부모의 양육 태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간의 관계에서 그릿과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부모의 양육 태도가 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그릿과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Hayes(2013)의 PROCESS macro의 Model 4를 이용하여 다중병렬 매개모형을 검증하였다. PROCESS macro에서는 매개변인별로 두 번 단순 매개분석을 하지 않고 동일 모형을 통합하여 동시에 분석함으로써 간접효과 검정의 검정력이 증가하고 간접효과를 비교할 수 있다(Hayes, 2013). 더불어 동일 모형에서 매개 변인 간의 인과적 관계와 매개변인 두 개를 모두 매개하는 효과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또 Sobel(1982) 검증을 하지 않고 Bootstrapping을 적용하여 Macro(Preacher, & Hayes, 2004; 2008; Hayes, Preacher, & Myers, 2011)를 이용하였다. 그 이유로 sobel 검증은 매개효과(ab)의 분포가 정규분포를 이룬다고 가정하는데 매개효과(ab)가 정규분포를 이루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Preacher와 Hayes, 2004), 따라서 만약 정규성 가정을 만족하지 못하면 부정확한 결과가 산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박현정, 이진실, 2013; 허원무, 2013).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매개모형 검증과 Bootstrapping을 동시에 검증할 수 있게 되었다.

가. 부모의 양육 태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그릿과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의 다중병렬 매개효과

Hayes(2013)의 PROCESS macro의 Model 4를 이용하여 다중병렬 매개모형을 검증하기 위해서 부모의 양육 태도를 예측변수로,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준거 변수로, 그릿과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변수로 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모형 1은 부모의 양육 태도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으로 F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p < .001$), 설명력은 16.5%이다. 즉 부모의 양육 태도는 자녀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는 표IV-5와 같다.

표IV-5 부모의 양육 태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에서 그릿과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의 다중병렬매개효과

모형	변인		B	β	SE	t	95% 신뢰구간	
	예측	준거					LLCI	ULCI
모형 1	부모 양육 태도	학업적 자기 효능감	.234	.165	.069	3.378***	.098	.371
$F=11.409, R^2= .027$								
모형 2	부모 양육 태도	그릿	.338	.245	.066	5.092***	.208	.469
$F=25.926, R^2= .245$								
모형 3	부모 양육 태도	진로 결정 자기 효능감	.155	.155	.049	3.159*	.059	.251
$F=9.978, R^2= .024$								
모형 4	부모 양육 태도		.124	.087	.069	1.784	-.013	.260
		그릿	.185	.180	.050	3.724***	.087	.283
		진로 결정 자기 효능감	.310	.219	.067	4.598***	.177	.442
$F=16.441, R^2= .109$								

주. $N= 409$, * $p<.05$, *** $p<.001$

모형 1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확인하는 모형이며, 독립변수인 부모의 양육 태도가 종속변수인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beta=.165(t=3.378, F=11.926, p<.001)$ 로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1을 확인하는 모형이며, 독립변수인 부모의 양육 태도가 매개변수인 그릿에 미치는 영향은 $\beta=.245(t=5.092, F=25.926, p<.001)$ 로 정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부모의 양육 태도가 그릿에 정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모형 3은 독립변수인 부모의 양육 태도와 매개변수 2인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확인하는 모형이다. F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모형이 적합하였고($F=9.978, p<.05$), 독립변수의 설명력은 15.5%로 부모의 양육 태도는 자녀의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에 정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모형 4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1, 매개변수 2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모형으로 역시 F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모형에 적합하였다($F=16.441, p<.001$). 그리고 매개변수 1인 그릿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유의하게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beta=.180, p<.001$) 매개변수 2인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이 학업적 자기효능감 역시 유의한 영향을 끼친 것($\beta=.219, p<.001$)과는 달리 독립변수인 부모의 양육 태도는 $\beta=.087(p>.05)$ 로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아서, 부모의 양육 태도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그릿과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은 완전 매개효과를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다중병렬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고, 표본수는 Hayes(2013)가 권장한 10,000개로 지정하였으며, 신뢰구간 95%에서 매개효과 계수의 하한값(LLCI)과 상한값(ULCI)을 확인하였다.

부모의 양육 태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이의 그릿의 매개효과는 .063이며 95% 신뢰구간의 상한값(ULCI=.118)과 하한값(LLCI=.023)의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아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 역시 매개효과는 .048이며 95% 신뢰구간의 상한값(ULCI=.090)과 하한값(LLCI=.013)의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아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부모의 양육 태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이에서 그릿과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은 매개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매개의 총효과를 살펴보면 .078이고 95% 신뢰구간의 상한값(ULCI=.118)과 하한값(LLCI=.023)의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아 위에서 확인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그릿,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한 부모의 양육 태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으로 가는 모형의 직접 효과는 $\beta=.087(p>.05)$ 로 경로가 유의하지 않았고, Bootstrapping의 매개효과 확인 결과 95% 신뢰구간의 상한값(ULCI=-.013)과

하한값(LLCI=.260) 사이에 0을 포함하여 그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으므로 부모의 양육 태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이에서 그릿과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은 완전 매개효과가 있다고 파악할 수 있다. 그 결과는 표IV-6과 같다.

표IV-6 다중병렬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경로	Effect	BootSE	95% 신뢰구간	
				LLCI	ULCI
	총효과	.078	.019	.043	.118
	직접효과	.124	.069	-.013	.260
매개 효과	$X \rightarrow M_1, M_2 \rightarrow Y$.111	.028	.060	.171
	$X \rightarrow M_1 \rightarrow Y$.063	.022	.023	.110
	$X \rightarrow M_2 \rightarrow Y$.048	.019	.015	.090

주. $N=409$, X =부모의 양육 태도, Y =학업적 자기효능감, M_1 =그릿, M_2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

다. 다중직렬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이 연구모형에서 다중직렬매개효과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릿과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그릿과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은 연구 변인 간 상관관계에서 $r=.089(p>.05)$ 이므로 서로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다.

두 변인 간의 인과 관계의 유의성을 확실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Hayes(2013)의 PROCESS macro의 Model 6을 이용하여 다중 직렬 매개모형을 검증해 보았다. 그릿을 예측 변인으로,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을 준거 변인으로 설정하고 매개 경로의 유의성을 확인한 결과 $\beta=.054(p>.05)$ 로 경로가 유의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Bootstrapping 결과도 부모의 양육 태도에서 그릿과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을 거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으로 가는 매개효과는 0.3%이며 95% 신뢰구간의 상한

값(ULCI=-.003)과 하한값(LLCI=.010)의 사이에 0을 포함하여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는 표IV-7과 같다.

표IV-7 다중직렬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모델	변인		B	β	SE	t	F	R ²
	예측	준거						
그릿 →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	그릿	진로 → 결정자기 효능감	.059	.054	.037	1.071	5.564	.050
경로			Effect	BootSE	95% 신뢰구간		LLCI	ULCI
$X \rightarrow M_1 \rightarrow M_2 \rightarrow Y$.003	.003	-.003		.010	

X = 부모의 양육 태도, Y = 학업적 자기효능감, M_1 = 그릿, M_2 =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

주. $N=409$, $p=.285$

값을 중심으로 연구 결과를 시각화한 그림은 그림 IV-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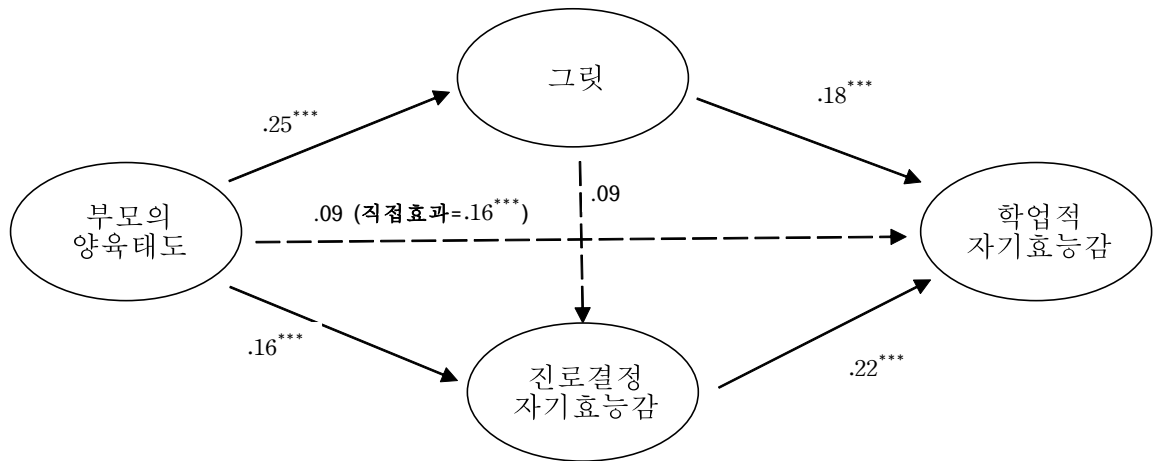


그림 IV-1 부모의 양육 태도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라. 긍정적 양육 태도와 부정적 양육 태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의 그릿과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의 다중병렬매개효과

본 연구의 연구목적은 부모의 양육 태도와 자녀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그릿과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함이었고, 그 결과는 다중병렬매개효과가 있었다. 더불어 긍정적 양육 태도와 부정적 양육 태도를 분류해서 그릿과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과의 사이의 매개효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았다.

(1) 긍정적 양육 태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의 그릿과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의 다중병렬매개효과

부모의 긍정적 양육 태도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며($\beta=.169, F=11.905, p<.05$), 긍정적 양육 태도가 그릿에 미치는 영향력($\beta=.177, F=13.149, p<.001$)과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beta=.203, F=17.551, p<.001$)도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Bootstrapping 결과 부모의 긍정적 양육 태도가 직접적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가는 경로 및 그릿과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는 신뢰구간의 상한값과 하한값의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아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는 표 IV-8과 같다.

표IV-8 긍정적 양육 태도가 학업적 자기효능감, 그릿,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

준거 변인	B	β	SE	t	F	R ²	95% 신뢰구간	
							LLCI	ULCI
학업적 자기효능감	.322	.169	.093	3.450*	11.905	.028	.138	.505
그릿	.329	.177	.091	3.626***	13.149	.031	.151	.507
진로결정자기효능감	.274	.203	.065	4.189***	17.551	.041	.145	.402

주. N=409, 예측 변인: 긍정적 양육 태도, * $p<.05$, *** $p<.001$

긍정적 양육 태도가 그릿과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 경로를 거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으로 가는 경로에서는 매개변수 1인 그릿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유의하게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beta=.186, p<.001$), 매개변수 2인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이 학업적 자기효능감 역시 유의한 영향을 끼친 것($\beta=.213, p<.001$)과는 달리 부모의 긍정적 양육 태도는 $\beta=.092(p>.05)$ 로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아, 부모의 양육 태도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그릿과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은 완전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결과는 표IV-9와 같다.

표IV-9 긍정적 양육 태도 매개효과 및 경로 검증

변인		B	β	SE	t	F	R ²	95% 신뢰구간	
예측	준거							LLCI	ULCI
긍정적 양육 태도		.176	.092	.093	2.473			-.006	.358
그릿	→ 학업적 자기효능감	.192	.186	.049	3.897***	16.605	.110	.095	.283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		.303	.213	.068	4.438***			.168	.435

긍정적 양육 태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으로 가는 경로		Effect	BootSE	95% 신뢰구간	
총효과	직접효과			LLCI	ULCI
총효과		.076	.019	.043	.115
직접효과		.176	.093	-.006	.358

주. N=409, * $p<.05$, *** $p<.001$

그 결과는 그림 IV-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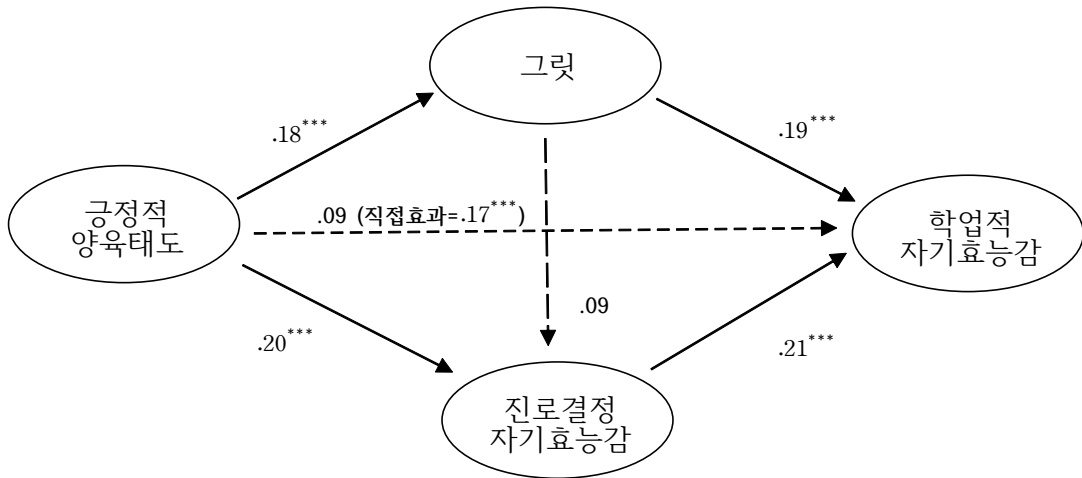


그림 IV-2 부모의 긍정적 양육 태도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2) 부정적 양육 태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의 그릿과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의 다중병렬매개효과

부모의 부정적 양육 태도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통계적으로 유의하며($\beta=.207$, $F=18.221$, $p<.001$), 부정적 양육 태도가 그릿에 미치는 영향력($\beta=.294$, $F=38.454$, $p<.001$)과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beta=.215$, $F=19.806$, $p<.001$) 역시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Bootstrapping 결과 부모의 부정적 양육 태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 그릿과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는 신뢰구간의 상한값과 하한값의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아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는 표IV-10과 같다.

표IV-10 부정적 양육 태도가 학업적 자기효능감, 그릿,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

준거 변인	B	β	SE	t	F	R ²	95% 신뢰구간	
							LLCI	ULCI
학업적 자기효능감	.338	.207	.079	4.269*	18.221	.043	.183	.494
그릿	.468	.294	.0975	6.201***	38.454	.086	.320	.616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	.248	.215	.056	4.450***	19.806	.046	.139	.358

주. N=409, 예측 변인: 부정적 양육 태도, * $p<.05$, *** $p<.001$

부정적 양육 태도가 그릿과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 경로를 거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으로 가는 경로에서도 매개변수 1인 그릿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유의하게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beta=.179, p<.05$) 매개변수 2인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이 학업적 자기효능감 역시 유의한 영향을 끼쳤으나($\beta=.209, p<.001$), 부모의 부정적 양육 태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beta=.112(p>.05)$ 로 영향력이 여전히 유의하여 부모의 양육 태도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그릿과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은 부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결과는 표IV-11과 같다.

표IV-11 부정적 양육 태도 매개효과 및 경로 검증

변인		B	β	SE	t	F	R ²	95% 신뢰구간	
예측	준거							LLCI	ULCI
부정적 양육 태도	학업적 자기 효능감	.183	.112	.082	2.244*	17.128	.113	.023	.344
그릿	→	.174	.179	.050	3.464*			.075	.273
진로 결정 자기 효능 감	→	.296	.209	.068	4.357**	17.128	.113	.163	.430
부정적 양육 태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으로 가는 경로					<i>Effect</i>	<i>BootSE</i>		95% 신뢰구간	
								LLCI	ULCI
총효과					.095	.021		.056	.138
직접효과					.183	.082		.025	.023

주. N=409, * $p<.05$, *** $p<.001$

그 결과는 그림 IV-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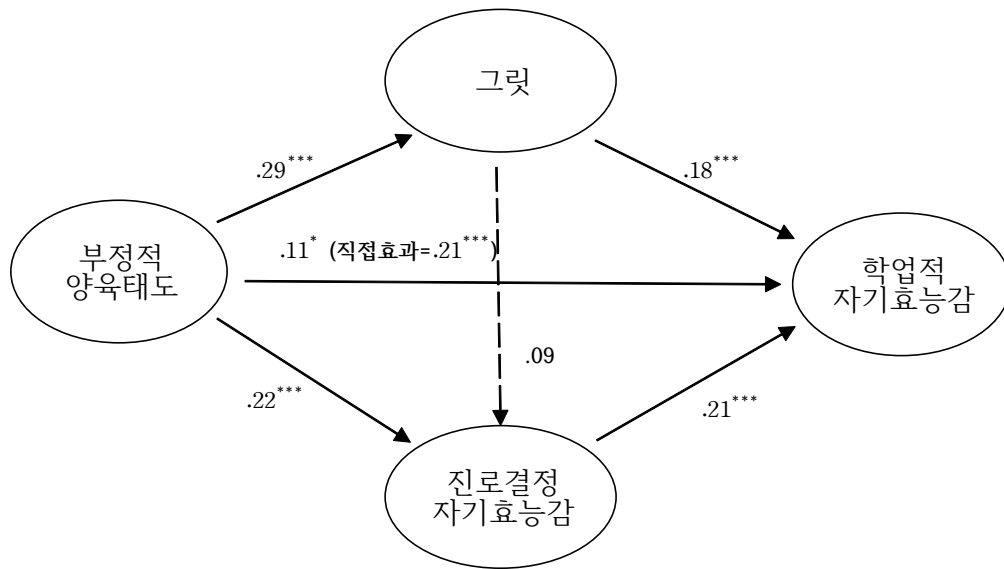


그림 IV-2 부모의 부정적 양육 태도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V. 논의 및 제언

1. 결과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전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 태도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부모의 양육 태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그릿,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와 상대적 관련성을 살펴보고, 부모의 양육 태도(긍정적, 부정적)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이에서 그릿과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의 다중병렬 매개효과를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선행연구와 관련지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가. 결과 요약

부모의 양육 태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그릿,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부모의 양육 태도, 그릿,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가설 1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먼저, 부모의 양육 태도가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유의미하게 정적 상관을 나타냈는데, 이는 대학생이 자신의 부모 양육 태도를 지각할수록 높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고, 부모-돌봄 양육 태도와 자기주도 학습 간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한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김원, 2014; 박영태, 현정숙, 1997; 최인선, 2013; 홍원표, 2013). 다음으로 그릿과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이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유의하게 정적으로 상관이 있었으며(정미라, 정은, 2018; 이서정, 신태섭, 2018),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이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여선영, 2015; 김기홍, 이경희, 2020).

부모의 양육 태도와 그릿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으로 나타났고(김민선, 2021; 김송은, 2020; 이미라, 전향신, 2021), 부모의 양육 태도와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

역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강하은, 2021; 김소희, 박지영, 손영우, 2018). 흥미로운 점은 긍정적 양육 태도와 부정적 양육 태도 모두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상관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릿과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은 $r = .089(p > .01)$ 수준이므로 서로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는데, 대학생의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과 그릿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는 연구 결과(송희경, 2020)와는 다르다.

부모의 양육 태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이에서 그릿,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이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서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부모의 양육 태도, 그릿,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이는 가설 2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첫째,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 태도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다른 선행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를 볼 수 있다. 부모의 양육 태도가 학업적 지연 행동에 미치는 영향(문정래, 2016), 부모가 애정적인 양육 태도가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발달시킨다는 연구(유미영, 2012), 부모의 양육 태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낸다는 연구 등 다수 이루어졌다.

그리고 본 연구의 결과인 긍정적 양육 태도와 더불어 부정적 양육 태도도 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유의하게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난 결과는 부모의 양육 태도가 부정적일수록 진로성숙도는 낮다고 볼 수 있다는 선행연구(구가은, 2022; 김유미, 유순화, 2007; 박희현, 조은주, 2012)와는 다른 결과이지만, 어머니의 양육 태도 중 권위주의적 양육 태도와 민주적 양육 태도 모두 의지 통제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박해준, 안도희, 2014)와 맥을 같이한다.

둘째, 그릿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일관적인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는 경우 학업에 대한 자신감이 향상된다고 볼 수 있다. 이 결과는 노력 지속성이 높을수록 실제 공부에 투자하는 시간이 많았다고 하는 연구(최정아, 2018), 그릿이 공부에 투자한 시간의 정도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Duckworth, 2007), 자신이 목표했던 학업 수행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끌어주고 결과적으로 학업적 자기

효능감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 해 준다는 연구(Duckworth & Quinn, 2009; Rojas et al., 2012; 임효진, 2016; 유영란, 2015) 등 다수가 있다.

그런데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진로 동기를 직접적으로 이끌어낸다고 하기보다는 그릿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발현되는 것이 밝혀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윤성혜, 유지원, 유영란, 2017), 그릿의 ‘관심의 일관성’보다는 ‘노력의 꾸준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한 연구도 있다(조승화, 2019; 이서정, 신태섭, 2018).

셋째,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 결정에 요구되는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다는 개인의 신념에 따라 진로 관련 의사결정에 대한 준비하는 정도’라고 정의되므로(Hackett & Bets, 1981), 대학생들의 진로발달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은 자기효능감이라고 할 수 있다(조성연, 문미란, 2006). 많은 연구에서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진로준비 행동 수준을 높이며(김선중, 2005; 백사인, 2011), 이는 곧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김아영, 2018). 또 진로 결정 수준이 높을수록 학업에 대한 높은 자신감뿐만 아니라 학업적 적응이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장경문, 2005; 김경주, 김기홍, 박경선, 2012).

마지막으로 부모의 양육 태도가 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그릿과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은 완전매개효과가 있었고, 이는 가설 3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그런데, 그릿과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Model 6을 이용하여 다중직렬매개모형을 검증해 본 결과 매개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 태도가 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그릿과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은 다중병렬매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부모의 양육 태도가 그릿 및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을 통해서 분명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즉 대학생이 부모 양육 태도를 높은 수용 수준과 높은 자율성 존중 수준으로 지각할수록 높은 그릿과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을 지니고 학업 적응으로 이어진다고 할 것이다. 다른 연구에서 찾아보면, 부모 양육 태도와 학업 적응의 관계에서 그릿이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연구(조승화, 2019; 권미나, 2020),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 지지가 진로성숙도

와의 관계에서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이 부분매개효과가 있다고 하는 연구(이보영, 백지숙, 2019)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나. 논의

부모의 긍정적 양육 태도와 부정적 양육 태도를 각각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여 그릿과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부모의 긍정적 양육 태도는 완전 매개효과가 있었고 부정적 양육 태도는 부분 매개효과가 있었다. 즉 본 연구에서는 따스함, 자율성지지, 구조제공으로 이루어진 긍정적 양육 태도뿐 아니라, 거부, 강요, 비일관성으로 이루어진 부정적 양육 태도 역시 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매개하는 것을 보여준다.

선행연구에서의 경우를 찾아보면, 이승진, 최려나(2020)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에서 학업 무기력으로 가는 경로는 긍정적 양육 태도와 부정적 양육 태도 모두에서 그릿이 완전 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열의 역시 긍정적 양육 태도와 부정적 양육 태도에서 모두 정적인 영향을 나타내었지만, ‘강요’ 등과 같은 부정적 양육 태도는 청소년의 학업에 대한 열의를 일시적으로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비자발적으로 높이는 결과에 불과하다고 하였고,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 태도 기술이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고 하였다.

김민선(2021)은 부모양육태도와 학업열의의 하위요인인 활기와의 관계에서 그릿의 조절효과는 부정적 부모 양육 태도가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이동할 때 학업 열의에 미치는 부(-)적 영향이 그릿의 조절효과로 인해 완화된다고 하였다. 김선정(2020)은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긍정적 양육 태도는 학업 열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이유를 긍정적 양육 태도를 정의한 하위요인인 따스함, 자율성지지, 구조제공이 학업적인 영역으로 특정 지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황예은(2019)은 어머니의 문제형 의사소통과 아동의 학교행복감의 관계에서 그릿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하였다.

김소희, 박지영, 손영우(2018)는 긍정적 양육 태도와 더불어 부정적 양육 태도도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이유를 문화권에서 찾았는데, 서양 문화권에서는 자율적인 양육 태도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과는 달리,

동양 문화권에서는 통제적 양육 태도의 결과가 부정적이지만은 않다고 하였다 (Ivengar, Lepper, 1999). 또 한국과 프랑스의 비교문화 연구 결과에서도 한국 청소년들은 프랑스의 청소년들과 달리 오히려 부모의 엄격하고 통제적인 행동이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에 정적인 관계를 보인다고 하였다(Sovet, Metz, 2014).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양육 태도와 더불어 부정적 양육 태도도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이유를 대학생이라는 Eri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단계 (노안영, 강영신, 2003)와 한국인의 정(최상진, 2011)에서 찾아보았다. 먼저 Eri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단계로 보면 대학생은 성인 초기의 단계로서 이 시기에는 부모로부터 독립하게 되고 책임감 있는 성숙한 성인으로서 기능하게 된다. 이 시기의 개인은 다른 사람과의 친밀감을 형성하고 자신의 정체감을 확립하게 되어 부모의 거부, 강요, 비일관성의 양육 태도도 성인으로서 이해하기 때문에 판단된다. 더불어 한국인의 특성인 ‘정’은 자신이 좋아하는 성격의 소유자뿐 아니라 자신이 싫어하고 불유쾌한 공공활동 경험을 가진 미운 사람에게도 정을 느끼며, 부모님, 고향, 모교, 학교, 스승 등은 언제나 그리운 존재로 남는다는 것이다 (최상진, 2011).

위와 같이 선행연구에서도 부모의 긍정적 양육 태도뿐 아니라 부정적 양육 태도에서도 학업과 관련하여 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결과가 있었으나, 그 수가 많지 않아 더 많은 후속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2. 결론 및 제언

가. 결론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기의 후반 및 성인 초기에 속하는 대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은 역시 진로 문제로써 자신의 진로 및 직업 선택일 것이며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 중 4학년(133명, 32.5%)의 참여율이 가장 높을 것도 그 이유일 것이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진로 및 직업 선택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을 연구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부모의 양육 태도와 그릿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은 많았지만 대부분 초등학교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많지 않았는데, 본 연구는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선정하였고 그 결과는 부모의 양육 태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그릿,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은 모두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관련한 다양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부모의 양육 태도는 그릿,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의 병렬 매개로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이른다라는 것이다. 즉 대학생들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주요 변인으로 그릿과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을 빼놓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부모의 양육 태도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이르는 경로에서 그릿,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는 요인을 살피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그릿의 유전적 요인을 배제하고 대학생의 그릿을 향상하게 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가 후속되어야 할 것이고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을 기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긍정적 양육 태도와 부정적 양육 태도가 학업적 자기효능감으로 가는 경로에서 그릿,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긍정적 양육 태도는 완전 매개를 하였으나, 부정적 양육 태도는 부분 매개효과가 있었다. 이것으로 다른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향상을 위해서는 긍정적 양육 태도의 필요함을 알 수 있으며, 부모는 긍정적인 양육 태도를 갖

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나.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며,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할 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자기보고식 설문지만 사용하였으므로 응답자의 성실성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정보가 없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성인 초기의 대학생들은 자신의 응답을 사회적 바람직성을 기준으로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후속 연구에서는 사회적 바람직성의 응답을 판별할 방법의 개발도 필요할 것이고, 설문 결과가 연구자의 의도를 잘 반영한 것인지의 재평가도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대상인 대학생들은 청소년기를 벗어나고 성인기의 경계에 있다고 할 수 있고, 점차 독립하여 자신을 책임지고 가족을 이루어 부모의 영향에서 벗어나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시기이다. 본 연구에서 대학교 4학년의 참여가 가장 많은 결과를 살펴보면, 그들의 진로에 대한 고민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모의 ‘따스함, 자율지지, 구조제공’으로 이루어진 긍정적 양육 태도뿐 아니라 ‘거부, 강요, 비밀관성’으로 이루어진 부정적 양육 태도가 대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더 많이 필요할 것이고, 대학생을 학년별로 세분화하거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도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 태도에서 잠재변인인 긍정적 양육 태도와 부정적 양육 태도로 설정하고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그릿,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으나, 그릿,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의 잠재변인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그릿,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이 서로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는데 그에 따른 심층적 연구가 더 필요할 것이다.

VI. 참고 문헌

- 강경찬 (1996). **한국 중·고교생의 진로 성숙 및 진로포부 관련 변인 탐색**.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강명희, 윤성혜, 김도희, 류다현 (2016). 자연과학계열 대학생의 진로 준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그릿,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 진로 결과기대, 전공 흥미 간의 관계 분석. **직업교육연구**, Vol. 35, No. 4, 109-129.
- 강정은 (2008). **진로장벽, 심리적 독립,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 결정 수준 및 진로 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 4년제 여자대학생과 전문대 여자대학생의 비교**. 석사학위 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강하은 (2021).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 태도가 직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 자아 정체감,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강희순 (2010). 대학생의 성별, 학년, 진로 의식이 진로개발 준비도 및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실천연구학회: 교육실천연구**, 9(3), 83-104.
- 교육학 사전 편찬위원 (1996). **교육학 대사전**. 서울: 대한교육연합회.
- 구가은 (2022).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긍정적 및 부정적 양육 태도와 진로 준비행위의 관계에서 진로성숙도의 매개효과**. 신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구분용, 유제민 (2010). 부모의 긍정적 관여와 자기효능감이 대학생의 진로 결정과 진로 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 연구**, 11(1), 171-187.
- 권미나 (2020).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긍정적 양육 행동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그릿과 학교적응의 이중매개 효과. **아동권리학회**, Vol. 24, No. 4, 529-545.
- 권일선 (1995). **어머니의 자아개념 및 양육 태도가 유아의 유치원 적응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권재환, 김경희 (2013). 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기조절학습능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33, 31-57.
- 기영락, 임성택 (2010). 전문계 고등학생의 부모 관계와 진로성숙도 및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 **직업교육연구**, 29(1), 63-80.
- 김경주, 김기홍, 박경선 (2012). 독립대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 진로 결정 수준 및 학업적 자아효능감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교육의 이론과 실천**, 17(2), 1-25.
- 김광범, 김상태 (2007). 무용전공 대학생의 그릿과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 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무용학회 논문집**, Vol. 51 No. 31-43.
- 김기홍, 이경희 (2020). 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 학습몰입, 학업적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핵심역량 간의 구조 관계 분석. **열린교육연구**, Vol. 28, No. 4, 117-143.
- 김도연 (2011). **고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동일, 정여주, 이주영, 김명찬, 이윤희, 강은비, 금창민, 남지은 (2012). 성인용 간략형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 척도 개발. **상담학연구**, 13(2), 629-644.
- 김미숙, 이성희, 백선희, 최예술 (2015). 초·중·고 학생의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 및 성별·학년별 특성.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5), 297-322.
- 김미영, 이재신, 이지혜 (2015). 대학생의 의사 결정 유형,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 진로 동기와 진로미결정 간의 관계. **청소년상담연구**, Vol. 23, No. 2, 1-19.
- 김미화 (2006). **부모 양육 태도 및 교사 태도 지각과 아동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민정. (2003).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 및 스트레스 대처행동 간의 관계**.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혜, 오인수(2019).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가 대학생의 학업소진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과 친구관계 질의 조절된 매개효과. **교육혁신연구**,

Vol. 29, No. 1, 207-227.

- 김선정 (2020).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긍정양육태도와 교사애착이 학업열의에 미치는 영향; 그것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선중 (2005). **진로 장벽, 희망,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 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소희 (2019). **지각된 부모 양육 태도와 대학생 진로 소명의 관계: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와 부모의 자기 초월 가치지향의 조절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소희, 박지영, 손영우 (2018). **지각된 부모 양육 태도와 대학생 진로 소명의 관계: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와 부모의 자기 초월 가치지향의 조절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Vol. 15, No. 3, 433-458.
- 김송은 (2020). **대학생의 부, 모애착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자기 격려와 그것의 매개효과**.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신정, 김영희 (2008). **부모의 양육 태도에 대한 고찰**. **부모 자녀 건강 학회지**. 172-181(10쪽)
- 김아영 (2010). **학업 동기[이론, 연구와 적용]**. 학지사
- 김아영 (2018) **고등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그것의 매개효과**. 상지대학교 평화안보·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아영, 박인영 (2001).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교육학연구**, 39(1), 95-123.
- 김연수 (2008). **어머니의 학습 관여와 자기주도 학습 능력과 학업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대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영란, 김민정 (2016) **가족의 기능적 변인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성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모형;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이용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여성연구**, Vol. 90 No. 1 45-86.
- 김영숙 (2000) **進路情報 資料 活用을 통한 職務遂行 能力 伸張 方案**.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영희, 김신정 (2013). **여대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 태도**. **아동간호학회지** 제9

- 권 제3호, 309-322.
- 김원 (2014).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 양육 태도와 자기주도 학습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유미, 유순화. (2007). 영재아동과 일반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 태도와 진로 성숙 간의 관계. **상담학연구**, 8(1), 265-283.
- 김유민 (2018). **지각된 부모의 양육 태도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그릿과 기본 심리 욕구 만족도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유진 (2018). **대학생의 진로 준비 행동에 대한 대학 생활 적응, 자기효능감, 어머니의 양육 태도의 상대적 영향력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은지, 심정미, 윤정, 김정섭 (2020). 마인드셋, 학업적 의지 전략과 대학생활 적응 관계에서 부모 양육 태도의 조절된 매개효과. **미래교육학연구**. Vol. 33, No. 2, 157-185.
- 김장희. (2014).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영향 요인 및 진로의사결정수준의 매개효과 분석. **직업교육연구**, 33(2), 121-144.
- 김재은 (1974). 한국가족의 심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김주환 (2013). 그릿: 잠재력을 실력으로, 실력을 성적으로, 결과로 증명하는 공부법. 경기도: **쌤앤파커스**.
- 김지혜 (2017).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 및 학교생활 적응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아 탄력성의 조절효과**.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태명, 이은주 (2017). 한국판 청소년용 동기모형 부모양육척도(PSCQ_KA)의 타당화. **청소년학연구**, 24(3), 313-333.
- 김혜림 (2013). **초등학생의 감성지능, 학업적 자기효능감, 창의적 성향 간의 관계 규명**.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남미숙 (1998). 초등학생의 진로 자아효능감과 관련 변인과의 관계 연구. **진로교육연구**, 9(1), 199-222.
- 남미정 (2018). **초등학생의 정서지능, 그릿, 협력적 조절 및 학교행복감 간의**

- 관계.** 대구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노안영, 강영신 (2003). 성격심리학 2판. **학지사.**
- 노원재, 양윤, 박영숙 (2007). 청소년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학회**, 15(1), 59-66.
- 마티아스 도프케, 파브리지오 질리보티 (2019). 기울어진 교육. **(주)메디치미디어.**
- 문선희 (2013).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지배형 양육태도와 학업성취도의 구조적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Vol. 31, 11 - 21.
- 문정래 (2016). 부모의 양육태도가 학업적 지연 행동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민혜원 (2019). 그릿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성실성, 자기통제감, 과제가치의 매개효과.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계란, 이지민 (2012). 남녀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 태도가 성격 특성에 미치는 영향. **부모교육연구**, 제9권 2호 Vol. 9, No. 2, 5-20.
- 박령희 (2017).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 양육태도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수용태도와의 관계: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상미 (2019). 부모 애착과 그릿이 청소년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안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영태, 현정숙 (1997). 자기주도 학습력의 이해. 부산: **동아대학교 출판부.**
- 박예영, 이동형 (2014). 대학생의 진로 결정 수준과 진로준비 행동의 관계에서 구직효능감의 역할. **직업교육연구**, 33(2), 85-101.
- 박완성, 김미숙 (2009).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도의 관계-수도권 3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22(4), 85-108.
- 박용균 (2007). 체육 계열 대학생의 체육계열 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진로 결정 수준의 관계. 수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용진, 나승일 (2019).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학교소속감, 부모 지지, 자기효능감, 결과기대 및 그릿의 인과적 관계.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51(2),

97-120.

- 박혜준, 안도희 (2014). 어머니의 양육 태도와 고등학생의 학업 지연 행동 간의 관계에서 의지 통제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교육학연구**, 제25권 제2호 Vol. 25. No. 2. 93-116.
- 박혜연 (2018). **부모, 자녀 의사소통과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에 따른 군집 유형별 자기결정성 동기와 그것의 차이**.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희현, 조은주 (2012).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과 희망이 진로태도 성숙에 미치는 영향. **한국놀이치료학회지(놀이치료연구)**, 15(4), 515-533.
- 백사인 (2011). 대학 졸업반 학생의 취업장애 인식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연구. **취업진로연구**, 1(2), 91-109.
- 서동미 (1997).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선순자 (2021).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 그것, 학업적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수준 간의 구조적 관계**.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손성여, 강버들 (2019). 모의 양육태도가 대학생활적응과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수산해양교육연구**, 제31권 제3호, 통권99호, 717-726.
- 송미라 (2013). **과학고 학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 태도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교우관계의 매개효과**.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송지연 (2005). **부모양육태도와 학업성취목표가 학업성적과 학업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송희경 (2020). **대학생의 진로 정체감 및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 준비 행동 간의 관계에서 그것의 매개효과**.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신경아 (2005).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습 성취목표가 학습효능감과 능력 가변성 신념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안도희, 김지아, 황숙영 (2005). 초·중·고등학생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변인 탐색. **교육심리연구**, Vol. 19, No. 4, 1199-1217.

- 앤절라 더크워스 (2016). GRIT [IQ, 재능, 환경을 뛰어넘는 열정적 끈기의 힘]. **비즈니스북스**.
- 오아량, 손영우, 이수란 (2019). 장기목표를 달성하는 힘 그릿이 높은 사람들이 보이는 미래시간 조망에서의 특성. **韓國心理學會誌: 社會및性格**, Vol. 33, No. 3, 43-63.
- 오은주 (2020). 대학 신입생 진로결정수준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따른 군집유형과 지각된 진로장벽의 군집유형별 차이. **사고개발 제16권 제3호** Vol. 16, No. 3, 169-190.
- 우영식, 송민욱 (2020). 전문대학 신입생의 진로결정 수준,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기주도 학습능력, 대학생활 적응의 관계. **인문사회 21**, 13권 4호, 1417-1432.
- 우희정, 이숙 (1994). 가정환경과 아동의 자기효능감 간의 인과모형 탐색. **한국아동학회지**, 15(1), 71-90.
- 원명희 (2017). 공공기관 조직 구성원의 그릿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주도 학습 역량의 매개 역할.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유미영 (2010). 아동이 지각한 부모 양육 태도와 학업성취의 관계에서 정서기능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유영란, 유지원, 박현경 (2015a). 고등학생의 그릿 과 객관적 추론, 자기조절 학습 효능감 간의 관계 규명. **청소년학연구**, 22(10), 367-385.
- 유영란, 유지원, 박현경 (2015b). 학습에서의 그릿의 중요성 탐색. **한국교육공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15(1), 113-116.
- 윤성혜, 유지원, 유영란 (2017). 고등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동기 간의 관계에서 그릿의 매개효과 검증. **職業教育研究**, 47-66, Vol. 36, No. 3, 201.
- 이범 (2020). 문재인 이후의 교육. (주)메디치미디어.
- 이광민, 최영준 (2018). 체육계열 대학생들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전공만족도 및 진로결정태도의 관계. **중앙대학교 학교체육연구소**, vol. 6, no. 3, 61-73.
- 이기학, 이학주 (2000). 대학생의 진로 태도 성숙 정도에 대한 예언 변인으로서의

- 자기효능감 효과 검증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 및 심리치료**, 12(1), 127-138.
- 이미라, 전향신 (2020). 부모의 양육태도(따스함, 자율성지지, 구조제공), 그릿, 학업열의, 학업성취도와의 구조적 관계: 학교급에 따른 다집단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20권 제14호, 779-805.
- 이보영, 백지숙 (2019).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지지와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청소년시설환경**, 제17권 제4호 통권 제62호, 57-67.
- 이서영 (2020). **부모의 양육 태도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그릿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서정 (2018). **고등학생의 마인드셋이 그릿을 매개로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수학 포기 여부에 따른 다집단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서정, 신태섭 (2018). 고등학생의 마인드셋이 그릿을 매개로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수학 포기 여부에 따른 다집단분석. **서울대학교 교육연구** Vol. 19 No. 1, 59-87.
- 이선형 (2020). **학령기 아동의 그릿과 관련 변인들간의 관계 구조분석**.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수란, 손영우 (2013). 무엇이 뛰어난 학업성취를 예측하는가?: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과 끈기(Grit).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0(3), 349-366.
- 이수란, 안태영, 박서단, 양수진 (2021). 한국형 그릿 척도(The Korean Version of GRIT: K-GRIT) 개발 및 타당화: 측정학적 문제와 개념적 본질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40(3), 351-387.
- 이승진, 최려나 (2020).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학업태도에 미치는 영향, 그릿의 매개효과.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979-981.
- 이시은 (2009). 대학생의 부모-자녀 결합 형태에 따른 자기효능감과 또래 애착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vol. 21, no.2, pp. 481-500.
- 이연수, 원세정 (2013). 중학생의 학교 무용수업이 신체적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 및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무용과학회지**, 30권 2호, 1-18.

- 이은경 (2001). 자기효능감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은정, 장윤옥 (2008). 개인·가족·학교관련 변인이 중학생의 진로태도 성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5), 355-376.
- 이은주 (2006). 여대생의 진로 성숙과 진로포부 간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은진 (2002). 다재다능한 대학생을 위한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Vol. 14, No. 3, 621-636.
- 이정림 (2015). 통제소재, 마인드셋, 그릿, 학업성취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안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정림, 권대훈 (2016). 통제소재, 마인드셋, 그릿, 학업성취 간의 구조적 관계분석. **청소년학연구**, 23(11), 245-264.
- 이종찬 (2013).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관한 이론적 고찰 및 연구성과의 비교분석, **취업진로연구**, 3:1, 49-6.
- 이지은 (2021). 간호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 태도, 그릿),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7, No. 4, 543-550.
- 이지혜, 장영숙 (2016). 부모의 훈육방식이 유아의 자율성과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열린부모교육연구** 제8권 제4호 1-20.
- 이현림 (2000). 인문계 여고생의 진로지도 실태와 과제. **교육학논총**, 20(2), 147-164.
- 이현주 (2000).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에 따른 인지양식 차이. **한국교육학회 교육학연구**, 38(1), 235-257.
- 임유진 (2001).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 및 학교생활 적응 간의 관계.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임은경 (1998). 여성의 진로장벽 요인에 대한 고찰. **한국진로상담학회지**, 3(1), 79-97.
- 임효진 (2017). 그릿의 최근 연구 동향과 재개념화의 필요성. **교육심리연구**, 31(4), 663-681.

- 임효진, 하혜숙, 황매향 (2016). 초등학생의 끈기(Grit), 자기효능감, 성취목표, 학업적 자기조절의 구조적 관계. **교육과학연구**, 47(3), 43-65.
- 장경문 (2005).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 연구**, Vol. 6, No. 1, 185-196.
- 장미경, 한상희 (2003). 대학 신입생들의 진로 관련 변인들이 진로상담 및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16(2), 239-254.
- 장수현, 유성경 (2014). 대학교 4학년의 구직행동과 일의 목적/의미 및 부모지지의 관계에서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인간이해**, 35(1), 1-17.
- 장휘숙 (2001). 애착과 다섯 가지(Big Five) 성격 특성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발달**, 14(2), 105-119.
- 전경애. (2004). **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진로 의사 결정 유형이 진로 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 정교영, 신희천 (2011). 한국판 부모 양육 행동 척도(Korean-Parents as Social Context Questionnaire; K-PSCQ)의 타당화. **상담학연구**, 1287-1305.
- 정미라, 정은 (2018).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가 그것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제18권 제6호, 414-423.
- 정헬렌 (2011). **인라이어: 스스로 성공을 만들어 낸 사람들**. 서울: 랜덤하우스코리아.
- 조성연, 문미란 (2006). 성인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증진 프로그램 및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4), 731-748.
- 조승화 (2019).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습관여가 대학(원)생의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 그릿의 매개효과**. 한양사이버대학교 휴먼서비스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주영주, 김동심 (2016). 영재학생의 그릿(꾸준한 노력, 지속적 관심), 교사지원, 부모지원의 자기조절학습능력, 영재교육 만족도에 대한 예측력 검증. **특수교육**, 15(1), 29-49.
- 지진미 (2003). **부모의 양육 태도와 유아의 정서 지능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군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상진 (2011). **한국인의 심리학. 학지사**.

- 최슬기 (2016).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신체 존중감의 매개효과**.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영란 (2021). **진로 흥미와 진로 정체감이 그것에 미치는 영향**. 강원대학교 일 반대학원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
- 최영란 (2021). **진로 흥미와 진로정체감이 그것에 미치는 영향**. 강원대학교 일 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영현 (2019). **초등학생의 사회적 지지, 그것과 자기조절 학습 간의 관계**. 경 인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윤희, 황혜자 (2003).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에 미치 는 영향. **사회과학논집**, 22(1), 285-304. 동아대학교 사회과학대학.
- 최이선 (2008) **부모기대지각, 자기효능감, 진로태도성숙 및 학업성취와의 관 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교육심리학과 석사학위 논문.
- 최인선 (2012).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진로성숙 도가 자기주도 학습에 미치는 영향**. 호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임숙, 윤석환 (2016). 전문대학 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자율성지지, 심리적 통제 와 자아 정체감의 관계: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청소년학 연구**, 제23권 제8호. 167-194.
- 최정명 (2022).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긍정적 양육 태도가 회복탄력성과 학업 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Journal of The Health Care and Life Science**(ISSN 2383-4552), 221-229.
- 최정아 (2018). 학업적 자기효능감, 목표자기일치감, 그것이 학업성취를 위한 노 력에 미치는 영향. **교육종합연구**, 제 16권 제1호. Vol. 16, No. 1, 41-63.
- 하영화 (2009). **부모와 자녀가 지각하는 양육태도의 일치도와 학업적 자기효능 감 및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혜숙, 임효진, 황매향 (2015). 끈기와 자기통제 집단수준에 따른 성격 요인의 예측력 및 학교 부적응과 학업성취의 관계. **평생학습사회**, 11(3), 145-166.
- 한상춘 (2017). **대학생의 그것과 학업성취와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허청아, 배한진 (2018).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종단적 인과관계 분석. **아동학회지**, 39(1), 2018.2, 19-33.
- 홍애순 (2014). 초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교생활적응이 학교행복감 및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14(1). 45-58.
- 홍원표 (2013).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와 자아분화가 학습된 무기력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황광원 (2017). **그릿의 인성교육 적용 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황매향, 임은미, 김동일 (2004). 학습장애 청소년을 위한 상담과 지도. **청소년 상담연구**, 4(1), 47-68.
- 황매향, 하혜숙, 김명섭 (2017). 초등학생의 그릿과 학업성취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학습의 매개효과. **초등상담연구**, 16(3), 301-319.
- 황서운 (2017). **청소년의 부모애착, 또래애착, 교사애착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그릿과 열등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족학과 석사학위 논문.
- 황예은 (2019). **어머니의 문제형 의사소통과 아동의 학교행복감의 관계 : 학업스트레스와 그릿의 이중매개 효과**.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황윤정 김민희 (2014).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내외통제성, 진로탐색 효능감과 진로탐색 부적정서 경험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발표논문집**, 2014: 327.
- 황은희 (2017).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가 진로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그릿의 매개효과**.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황정희, 전수경. (2017). 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 성숙도의 관계. **인문사회** 21, 8(3), 843-856.
- Baldwin, A. L. (1949). The effect of home environment on nursery school behavior. *Child Development*, 20, 49 - 62.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 Bandura, A., & Schunk, D. H. (1981). Cultivating competence, self-efficacy and intrinsic interest through proximal self-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 586-598.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aumrind, D. (1973). The development of instrumental competence through socialization.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Becker, W. C. (1964). Consequences of different kind of parental discipline. In M. L. Hoffman & L. W. H Hoffman (Eds.),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1(pp.169-208)*, Russell Sage Foundation.
- Betz, N. E. & Hackett, G. (1981). A self-efficacy approach to the career development of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8*(3), 326-339.
- Betz, N. E., & Voyten, K. K. (1997). Efficacy and outcome expectations influence career exploration and decidednes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6*(2), 179-189.
- Betz, N. E., Klein, K. L., & Taylor, K. M. (1996). Evaluation of a short form of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1), 47-57.
- Bowman, N. A., Hill, P. L., Denson, N., & Bronkema, R. (2015). Keep on truckin' or stay the course: Exploring grit dimensions as differential predictors of educational achievement, satisfaction, and intentions.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6*(6), 639-645.
- Cooper, A. D. (2014). *Exploring the use of non-cognitive factors in predicting college academic outcom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attanooga, Tennessee: University of Tennessee.
- Crites, J. O. (1973). Theory and research handbook: Career maturity inventory. *Monterey, CA: CTB-Macmillan-Mcgraw-Hill*.
- Duckworth, A. (2016). Grit: The power of passion and perseverance. *New*

York, NY: Simon & Schuster, Inc.

- Duckworth, A. L., & Carlson, S. M. (2013). Self-regulation and school success. In B.W. Sokol, F.M.E. Grouzet, & U. Müller(Eds.), *Selfregulation and autonomy: Social and developmental dimensions of human conduct*, pp. 208-230.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uckworth, A. L., & Quinn, P. D. (2009).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hort Grit Scale(GRIT - 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91*(2), 166-174.
- Duckworth, A. L., Peterson, C., Matthews, M. D., & Kelly, D. R. (2007). Grit: Perseverance and passion for long-term go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6), 1087-1101.
- Hackett, G., & Betz, N. E.(1981). A Self-efficacy Approach to the Career Development of Woma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8*(3), 326-339.
- Hayes, A. F.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Y: Guilford Press.*
- income adolescents. Journal of Character Education: Greenwich, 14*(1), pp. 59-74.
- Holland, J. L. (1985). Making Vocational choice: A theory of vocational personalities and work environments. *Englewood Clifs, NJ: Prentice-Hall.*
- Iyengar, S. S., & Lepper, M. R. (1999). Rethinking the value of choice: A cultural perspective on intrinsic 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3), 349-366.
- Juang, L. P., & Silbereisen, R. K. (1999). Supportive parenting and adolescent adjustment across time in former Eastand West Germany. *Journal of Adolescence, 22*(6), 19-736.
- Judge, T. A., & Bono, J. E. (2001). Relationship of core self-evaluations traits

- self-esteem, generalized self-efficacy, locus of control, and emotional stability - with job satisfaction and job performance: A meta-analysi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6(1), 80-92.
- Kavanagh & Bower (1985) Mood and self-efficacy: Impact of joy and sadness on perceived capabilities.
- Kerns, K. A., & Stevens, A. C. (1996). Parent-Child Attachment in Late Adolescence: Links to Social Relations and Personalit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5(3), 323-342.
- Kline, R. B. (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e equation modeling (2nd ed)*. New York, NY: The Guilford Press.
- Kotrlik, J. W., & Harrison, B. C. (1989). Career Decision Patterns of High School Seniors in Louisiana.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14(2), 47-65.
- Lent, R. W., Brow, S. D., & Lakin, K. C. (1984). Relation of self-efficacy expectation to academic achievement and persisten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 356-362.
- Lopez, F. G., & Andrews, S. (1987). Career indecision: A family systems perspective.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65(6), 304-307.
- Maccoby E. E., & Martin, J. A. (1983). Socialization in the context of the family: Parent-child interaction. In P. Mussen & E. M. Hetherington(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NY: Wiley.
- Mandelbaum, T. (2018).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and grit in lower*.
- Miguel, J. P., Silva, J. T., & Prieto, G. (2013).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Scale-Short Form: A rasch analysis of the portuguese ver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2(2), 116-123.
- Palmer, S., & Cochran, L. (1988). Parents as agents of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5(1), 71-76.

- Pinquart, M., Teubert, D. (2010). Effects of Parenting Education With Expectant and New Parents: A Meta-Analysi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316-327.
- Rojas, J. P., Peser, J. A., Toland, M. D., & Usher, E. L. (2012). Psychometrics of the Grit scale. *Poster presented at the 2012 Spring Research Conference at University of Kentucky, Louisville, KY.*
- Roth, G., Assor, A., Niemiec, C. P. N., Ryan, R. M., & Deci, E. L. (2009). The emotional and academic consequences of parental conditional regard: Comparing conditional positive regard, conditional negative regard, and autonomy support as parenting practices. *Developmental Psychology*, 45, 1119-1142.
- Schaefer, E. S. (1959). A circumplex model for maternal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9, 226-384.
- Schunk, D. H. (1983). Developing children's self-efficacy and skills: The role of social comparative information and goal setting.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8, 76-86.
- Schunk, D. H. (1983). Effects of effort attributional feedback on children's perceived self-efficacy and achieve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4, 548-556.
- Schunk, D. H. (1990). Goal setting and self-efficacy during self-regulated learning. *Educational Psychologist*, 25, 71-86.
- Schunk, D. H., & Pajares, F. (2001). The development of academic self-efficacy. In A. Wiffield & J. S. Eccles (Eds.), *Development of achievement motivation* (pp. 15-31). San Diego, C, A: Academic press.
- Singh, K., & Jha, S. D. (2008).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and grit as predictors of happiness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the Indian Academy of Applied Psychology*, 34(Special Issue), 40-45.
- Skinner, E., Johnson, S., Snyder, T. (2005). Six dimensions of parenting: a motivational model.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5(2), 175-235

- Sovet, L., & Metz, A. J. (2014). Parenting styles and career decision-making among French and Korean adolesc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4(3), 345-355.
- Super, D. E. (1969). Vocational Development Theory: Persons, Positions, and Processe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1, 2-9.
- Symonds, P. M. (1949). Education and psychotherapy.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40(1), 1 - 32.
- Taylor, K. M. & Betz, N. E. (1983).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1), 63-81.
- Vainio, M. M., & Daukantaitė, D. (2016). Grit and different aspects of well-being: Direct and indirect relationships via sense of coherence and authenticity.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7(5), 2119-2147.
- Vasquez A. C., Patall E. A., Fong C. J., Corrigan A. S., & Pine L. (2015). Parent autonomy support, academic achievement, and psychosocial functioning: A meta-analysis of research.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 Von Culin, K. R., Tsukayama, E., & Duckworth, A. L. (2014). Unpacking grit: Motivational correlates of perseverance and passion for long-term goals.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9(4), 306-312.
- West, S.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56-75. *Newbury Park, CA: Sage*.

<Abstract>

The Effect of Parents' Parenting Attitude
Perceived by College Students on Academic
Self-Efficacy: The Mediating Effect of Grit a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Lee Hyeon Ju

Major in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Choi Bo-young

College students, who are the beginning of adulthood in the latter half of adolescence, become independent from their parents and function as mature adults, as well as preparing for productive work such as employment, marriage, and childbirth. However, college students in Korea are currently having a hard time deciding on their career path due to anxiety caused by job insecurity, job polarization, and extreme income disparity. Therefore, in this study, we tried to find a way to increase college students' academic self-efficacy by using parents' parenting attitude, grit,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s variabl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grit a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in the process of parenting attitude perceived by college students on academic self-efficacy'. First,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attitude, gri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academic self-efficacy was investigated, second, we investigate whether parents' parenting attitude, grit, a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academic self-efficacy, third, it was decided to verify whether grit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have a mediating effect between parents' parenting attitude and academic self-efficacy.

For this study, online and mobile surveys were conducted targeting university students attending 4-year universities located nationwide, and data analysis was performed with SPSS 26 and PROCESS macro 4.2 statistical programs for a total of 409 data.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was confirmed that the correlation between parenting attitude, grit,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academic self-efficacy was significant.

Seco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verify the influence of grit a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between parents' parenting attitude and academic self-efficacy, and confirmed to have an effect.

Third, as a result of verifying the multi-parallel parametric model using Model 4 of PROCESS macro, in the effect of parenting attitude on college students' academic self-efficacy, it was found that grit a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had multiple parallel mediating effects.

Fourth, parents' positive and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were set as independent variables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grit and self-efficacy in career decision-making, and parents' positive parenting attitude had a complete mediating effect, and negative parenting attitude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In the results of this study, not only positive parenting attitudes but also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showed a positive mediating effect. Kim So-hee, Park Ji-young, and Son Young-woo(2018) said that the reason why positive parenting attitudes and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were statically significant to academic self-efficacy was the influence of Eastern culture and Korean culture. In the study of Lee Seung-jin and Choi Ryeo-na(2020), it was said that middle school students'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such as 'forced', act as a factor that temporarily increases enthusiasm for studies, but this is only the result of involuntarily increasing academic enthusiasm.

In this study, the reason why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as well as positive parenting attitudes are statically significant to academic self-efficacy was found in Ericsson's psychosocial developmental stage of university students(Noh An-young and Kang Young-shin, 2003) and Koreans' Jung (Choi Sang-jin, 2011).

The biggest concern of university students in the latter half of adolescence and early adulthood will be career problems and career choices. In this study, parents' parenting attitude, academic self-efficacy, grit,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were selected as variables influencing college students' academic self-efficacy.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both grit a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had a positive mediating effect on the effect of parents' parenting attitude (positive or negative) on academic self-efficacy.

In the future, it can be said that various follow-up studies are needed to find ways to improve academic self-efficacy that directly affects the career and career choices of college students.

Key words: college students, parenting attitude, academic self-efficacy, gri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부록>

안내문

안녕하세요?

귀한 시간을 쪼개어 설문에 본 설문 조사에 응답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본 설문지는 “**부모의 양육 태도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본 설문 문항은 정해진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자신이 생각
해왔던 것들을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진솔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
겠습니다.

여러분의 응답은 연구의 귀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본 연구 참여는 **자발적으로** 진행되고, 참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더불
어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 13조(비밀의 보호), 제 14조(통계작성사무
종사자 등의 의무)에 의해 연구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에는 사용되지 않으
며, 모든 자료는 학술적인 연구 자료로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연구
에 협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 이 설문지와 관련하여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
여 주세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 전공

지도교수 : 최보영

연구자 : 이현주

E.mail: hyeon58@naver.com

❖ 응답자의 기초정보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해 주십시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나이는? 만 나이로 답해주세요.

만 세

3. 귀하의 학년은?

-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4. 귀하의 대학 소재 지역은 어디입니까?

- ① 서울, 경기도권 ② 강원도권 ③ 경상도권 ④ 전라도권
⑤ 충청도권 ⑥ 제주도

5. 귀하의 전공은 무엇입니까?

- ① 인문, 사회계열 ② 교육, 사범계열 ③ 자연, 공학계열
④ 예체능 계열 ⑤ 의, 약계열

* 설문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아래 □에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함.

❖ 다음 문항을 자세히 읽고 자신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부분에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이 없으니 솔직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1. 부모양육태도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 지 않 편 다	그 런 편 이 다	매 우 그 렇 다
1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신다.	①	②	③	④
2	부모님은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신다.	①	②	③	④
3	부모님은 항상 나를 반가워하신다.	①	②	③	④
4	부모님은 나를 특별하게 여기신다.	①	②	③	④
5	부모님이 나를 좋아하시는지 가끔 궁금할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6	부모님은 내가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신다.	①	②	③	④
7	부모님은 나로 하여금 불필요한 존재라고 느끼게 하신다.	①	②	③	④
8	부모님은 내가 하는 어떤 것도 만족스러워하지 않으신다.	①	②	③	④
9	부모님은 나를 믿어주신다.	①	②	③	④
10	부모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	①	②	③	④
11	부모님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을 하게 해주신다.	①	②	③	④
12	부모님은 나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신다.	①	②	③	④
13	부모님은 나에게 늘 무엇을 하라고 하신다.	①	②	③	④
14	부모님은 나에게 이래라저래라 하신다.	①	②	③	④
15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할 때 오로지 그분들의 방식만이 유일하게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신다.	①	②	③	④
16	부모님은 모든 것에 대해 “안 돼.” 라고 하신다.	①	②	③	④
17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할 때, 부모님이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다.	①	②	③	④
18	어떤 일이나 사물이 돌아가는 이치를 알고 싶어할 때, 부모님께서 설명해주신다.	①	②	③	④
19	내게 문제가 있을 때 부모님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도움을 주신다.	①	②	③	④
20	부모님은 내게 규칙을 말씀하실 때, 왜 지켜야 하는지 이유도 설명해주신다.	①	②	③	④
21	부모님이 약속을 해도, 그분들이 지키실지는 알 수 없다.	①	②	③	④
22	부모님은 무언가를 하겠다고 말씀하시고는 실제로는 하지 않으실 때도 가끔 있다.	①	②	③	④
23	부모님은 나에 대한 규칙을 자주 바꾸신다.	①	②	③	④
24	부모님은 사전에 주의도 주지 않고 화부터 내신다.	①	②	③	④

2. 학업적 자기효능감

문 항		전혀 그 렇 지 않 다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나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는 것이 재미있다.	①	②	③	④	⑤
2	가능하다면 어려운 과목은 피해가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깊이 생각해야 하는 문제보다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를 더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비록 실패하더라도 다른 친구들이 풀지 못한 문제에 도전하는 것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5	시간이 많이 들더라도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과목이 더 재미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만약 여러 과목 중 몇 과목만을 선택할 수 있다면, 쉬운 과목만을 선택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7	학교 공부는 무조건 쉬울수록 좋다.	①	②	③	④	⑤
8	쉬운 문제보다는 조금 틀리더라도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이 더 좋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쉬운 문제를 여러 개 푸는 것보다 어려운 문제 하나를 푸는 것을 더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쉬운 과목보다는 어려운 과목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수업 시간에 새로 배운 것들을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쉽게 연결시킬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보통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추어 공부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수업 시간 중에 중요한 내용을 잘 기록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내가 싫어하는 수업시간에도 주의집중을 잘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을 기억하기 쉽게 바꿀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인지를 잘 안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정해진 시간 안에 주어진 과제를 잘 마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 중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 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1	선생님과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은 내게 너무 큰 스트레스를 준다.	①	②	③	④	⑤
22	시험을 치르기 전에는 시험을 망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23	수업 시간 중에 선생님이 문제를 풀라고 시킬까 봐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24	토론할 때, 혹시 창피를 당할까 봐 내 의견을 제대로 발표하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25	수업 시간에 발표할 때, 실수할 것 같아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26	선생님이 모두에게 질문할 때, 답을 알아도 대답하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27	시험이 다가오면 불안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28	나는 시험 때만 되면 우울해진다.	①	②	③	④	⑤

3. 그릇

문 항		전혀 아니 다	대체 로 그렇 다	그저 그렇 다	대체 로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종종 목표를 세우지만, 나중에 그것과는 다른 일을 하곤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부지런하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의 관심사는 매년 바뀐다.	①	②	③	④	⑤
4	좌절은 나의 의욕을 꺾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몇 개월마다 새로운 목표나 관심사에 흥미를 갖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수년의 노력을 요구하는 목표를 달성해 이룬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때때로 새로운 생각이나 일 때문에 기존에 하고 있는 생각이나 일이 방해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내가 시작한 것은 뭐든지 끝낸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한동안 새로운 생각이나 계획에 사로 잡히지만 곧 관심을 잃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중요한 도전을 위해 좌절을 극복해왔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달성하는 데 몇 개월이 걸리는 일에는 꾸준히 집중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5.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관심을 가지는 직업들에 대한 정보를 도서관이나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다양한 전공들이 나열되어있는 목록 중에서 내가 원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앞으로 5년간의 진로계획을 세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만약 내가 선택한 전공을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 어떤 방법을 취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의 능력을 정확히 평가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관심을 두고 있는 직업 목록 중에서 내가 희망하는 한 가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선택한 전공을 이수하는데 어떤 교육과정이 필요한지 알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내가 선택한 전공이나 진로목표를 이루기 위한 일들을 힘든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나에게 적합한 직업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향후 10년간의 직업 고용 경향을 알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내가 좋아하는 생활방식(Life-style)에 맞는 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나의 이력서를 멋지게 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첫 번째 선택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전공을 바꿀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직업 선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가치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희망하는 직업의 평균 수입과 연봉을 알아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진로 결정을 하고 나면 그것이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걱정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7	선택한 진로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바꿀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8	진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가 어떤 희생을 감수할 수 있고 어떤 것은 감수하기가 어려운지 구분해 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9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할 기회를 만들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관심있는 전공이나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는 나의 적성이나 능력에 맞는 직종과 관련된 기관이나 기업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2	내가 원하는 생활방식(Life-style)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3	대학 혹은 대학원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4	취업 면접에 필요한 절차들을 실행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5	처음 선택한 진로나 분야가 불가능하다면 다른 전공이나 진로를 다음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